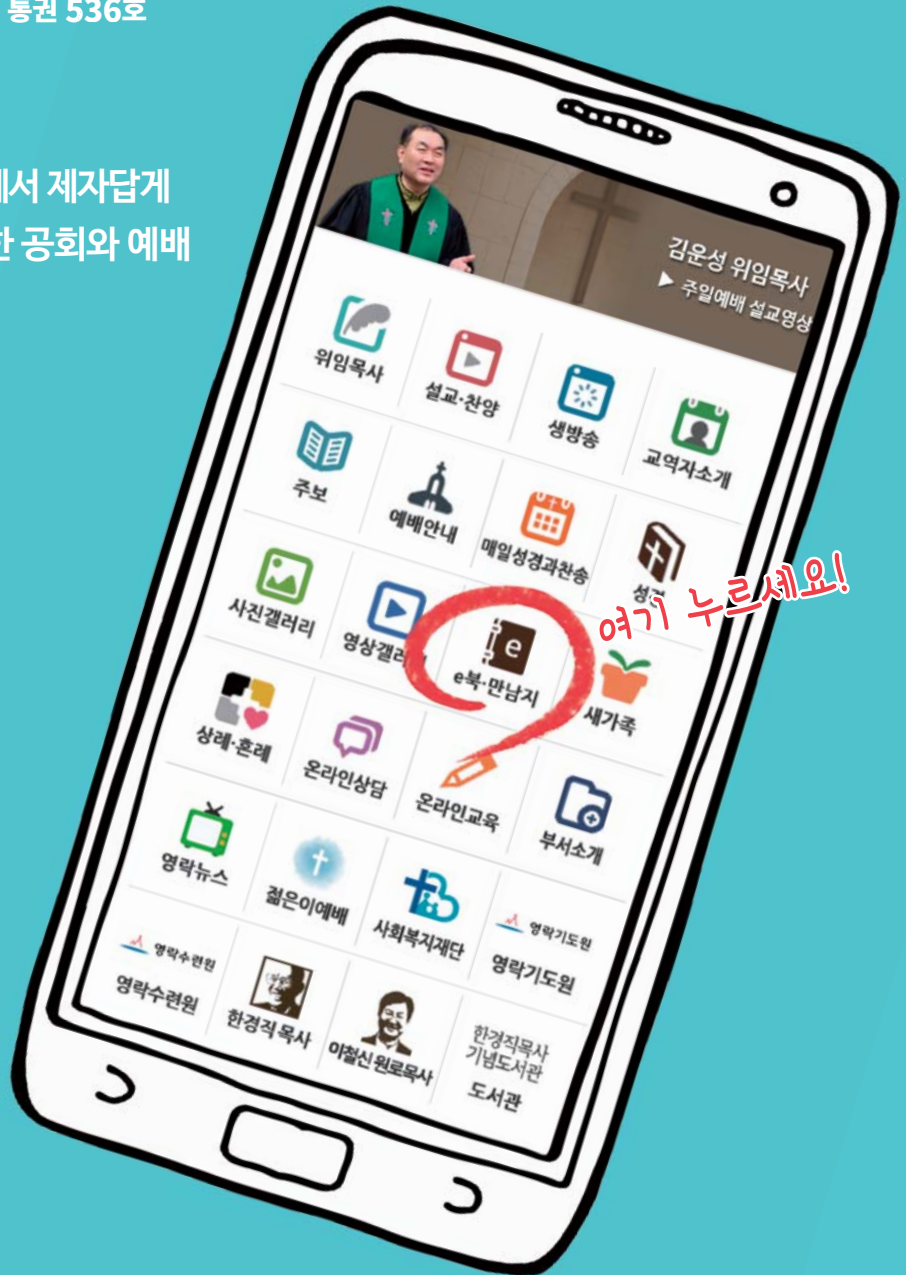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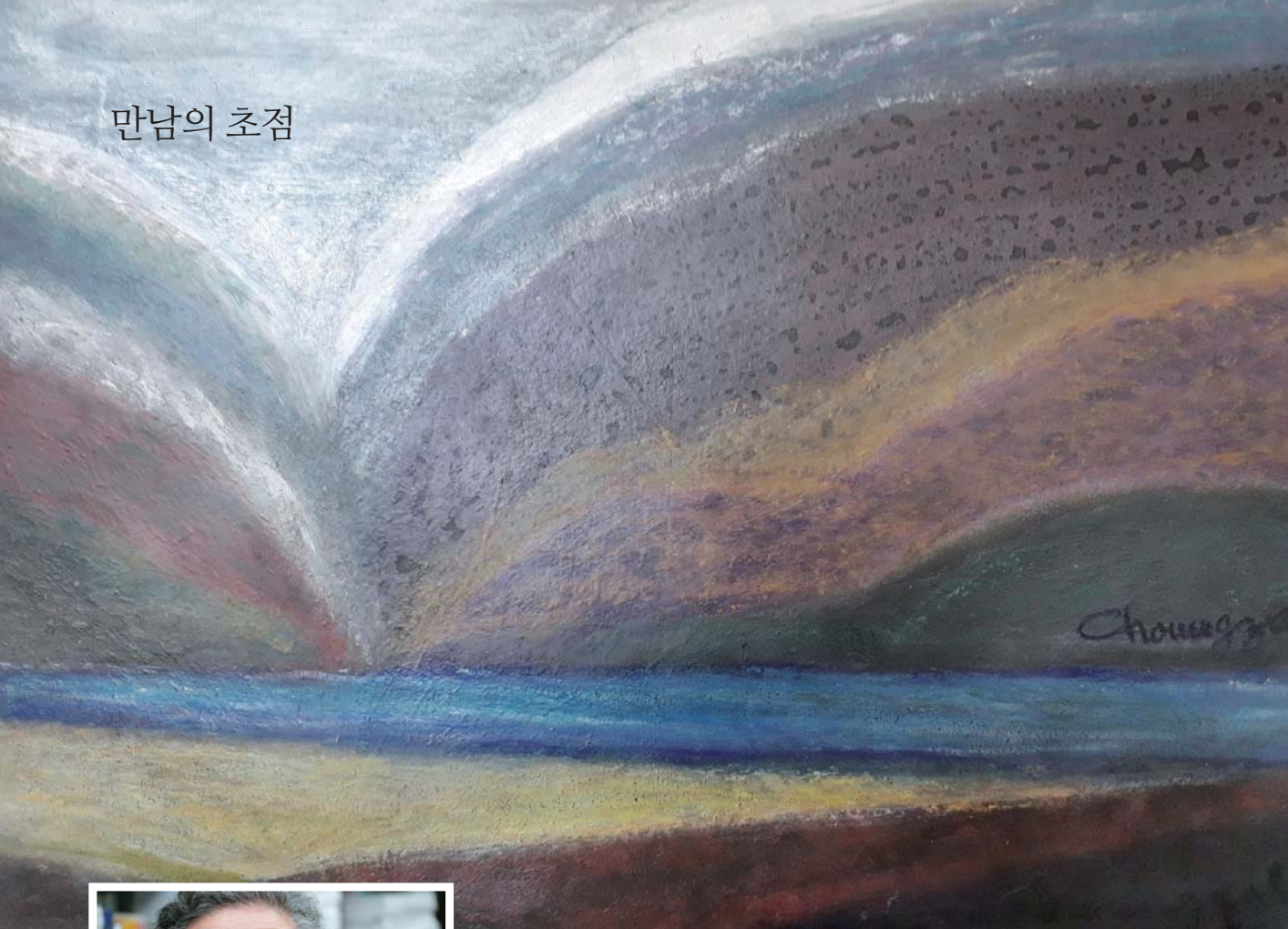
09

2018
통권 536호

특별기획 | 일상에서 제자답게
특 집 | 거룩한 공회와 예배



만남의 초점



시편 23편 3절 | 혼합재료 on canvas, 46.5x61.5cm, 2018년

‘기독교미술인’과 일반적인 ‘미술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차이는 ‘성경’ 곧 ‘하나님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있습니다. 나는 동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것 같았고, 작품을 하는 중에 한국적인 것을 많이 담아 표현했습니다.

- 8월 4일, ‘한국 기독교미술인의 정체성’에 관한 특별기획 좌담회 중
90세 김정자 은퇴권사의 말씀

만남

2018년 9월호 통권 536호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발행 2018. 9.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영근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교회표어

질서 있고 화평한 교회(고전 14:33상)

차례

이달의 말씀 02 •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 김운성

특별기획 04 • 예배로 드리는 나의 미술 | 최윤미 · 류정현
일상에서 제자답게!

특집 거룩한 공회와 예배

목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12 • 예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 이관형

교역자와 함께 걷는 산책 16 • SNS와 신앙 ① | 남정열

교육

- 영락지금 19 • 영락 대학생 눈에 비친 전도 ① | 우대권 · 오승현 · 목진경
생활과 역사 속의 기독교윤리 22 • 우선 한 가지, 예수 제자로 살아갑시다 | 고재길
한 권의 묵상 25 •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 읽고 나서 | 이종근
너 괜찮아? 28 • “다~ 괜찮습니다” | 신주현
여름수련회 소식2 31 • 야곱의 세대, 주님과 여름을

선교

- 세계선교 41 • 새로운 선교지 T국에서 동북아 선교까지 | 하영인
국내선교 45 • ‘신단녀’에서 ‘선교자’로의 변화 | 정은미

교제

- 문화광장 47 • 9월의 영락영화
48 • 성경에 나타난 추수절기와 그 의미 | 박성은
50 • 추석 가정예배, 한 해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자리 | 예배부
2018 산상기도회 53 • 가장 뜨거웠던 여름, 더욱 뜨거웠던 은혜 | 박선이
영락의 울타리 56 • 젊은 날의 사도신경 | 박진현 · 오승현

봉사

- 사랑의 거자씨 62 •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거, 자원봉사 | 모연섭
64 • 영상의학검사 종류와 효과적 이용 및 주의사항 | 이관섭

교회소식 67 • 신앙아카데미 성경암송 발표회 등

69 • 새가족 환영

70 • 영락역사자료 / 목회력

야곱의 우물가 71 • 영락화랑: 아름다운 묵상 /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72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미로 찾기

화보 73 • 2018 산상기도회 이모저모

표지설명



스마트폰은
이제 일상을 뜻한다
일상에서 어떻게
제자답게 거룩한 공회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표지에 담아보았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김 윤 성 위임목사

며칠 전 새벽에 말씀을 읽던 중 한 구절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에베소서 4장 15절) 이 말씀을 통한 감동이 커서 이미 8월의 암송구절을 정해서 보낸 후였지만, 이 구절로 바꾸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 목표는 다름 아닌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드로나 바울 정도로 자랄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것을 하는 것’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참된 것을 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알레듀오’로서 정확히 말하면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단어는 진리를 말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드러내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 개역개정판 성경처럼 “하여”라고 하거나, “살아서”라고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참된 것을 하여”라는 구절은 말과 행동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즉 진실한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로 번역한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신 가장 완벽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랑하기 때문

에 말씀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의 동기로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나 행동 모두가 참이었습니다. 그 안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체면이나 이권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참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에게까지 자라길 원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로 인하여 말과 행동이 거짓인 경우가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언젠가 어떤 지방에 아주 유명한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먹는 데 십 분 걸리는데, 기다리는 데는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기꺼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식점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독특한 맛을 내기 위해 몸에 해로운 향신료를 첨가한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긴 시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사람들은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음식점을 떠올리며 혹시 이상한 첨가물을 넣은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께서 차리신 음식을 먹으면서 혹시 이상한 것을 넣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좋은 것으로만 골라 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 새벽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단의 설교가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고, 심지어 헌금이 직분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전략하고, 목적을 위해 사랑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세상입니다. 일부 정치인들도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말과 행동을 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 사랑으로 거짓을 참인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인 저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참된 것만 해야 하겠지요. 어떤 행동이나 말도 거짓이나 과장 없이 참된 것만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참된 것만 하게 될 것입니다. 동료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가슴속 진실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참된 것만 말하고 행동합시다. 그렇게 하노라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모든 영락 가족들이 동참하길 기대합니다. **만남**

일상에서 제자답게 예배로 드리는 나의 미술

‘일상에서 제자답게!’ ‘교회생활을 넘어 신앙생활로!’

어떻게 해야 교회생활을 넘어 나의 일상과 나의 일에서 예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결코 쉽지 않은 이 질문에 대해 영락교회에 속한 기독교미술인들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지난 8월 4일(토) 홍보출판부 사무실에서 ‘영락 기독교미술인 좌담회’를 가졌다. 아브라함의 시대를 넘어 영락교회의 새로운 시대, ‘야곱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일상에서는 물론 특별히 미술 영역에서 예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교우들이 서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공감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눴다.

취재 최윤미 부선임기자, 류정현 청년 편집위원 사진 유승현 기자



아래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정자 은퇴권사, 서동희 은퇴권사, 김갑수 집사, 문인수 집사, 이혜순 권사, 최진희 집사, 류정현 청년 편집위원, 최윤미 부선임기자

최윤미 부선임기자 : 한국 기독교미술인으로서 겪었던 에피소드와 함께 개인 프로필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진희 집사(서초교구) : 회화를 전공했지만 지금은 유리로 조형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작업하는 모든 과정이 기도와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유리로 작업하게 된 계기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보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빛과 유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는 과정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인수 집사(강남교구) : 20년 전, 50주년기념관 건축시 베다니광장에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린 부조 상을 제작했습니다. 재작년에 영락수련

원의 대문, 십자가 설치, 오솔길 등 영락수련원 조형물 제작과 조성하는 일에 참여했고, 올해 한경직 목사우거처 대문과 곳곳의 디자인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들게 작업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혜순 권사(강남교구) : 저는 미술교육을 전공했고, 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접했습니다. 한 가지 전공이 아닌 회

화, 입체작, 디자인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장르를 학생에게 가르쳤고,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디자인교사로 수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많은 감동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갯세마네 동산 십자가-야경 | 문인수 집사, 화강석(익산석) 조명(LED등), 310x250x280cm, 2016년, 영락수련원



김갑수 집사(강서·구로·양천 교구)

저는 원래 산업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산업현장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괴리감이 있어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미술작가로 뒤늦게 출발했습니다. 현대문명, 인간, 환경문제, 이들 3가지를 작품 속에 녹여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파괴와 같은 기계 문명이 인간에게 끼치는 역기능적인 모습이 있지만 문명을 주신 분인 하나님 앞에서 문명과 인간과 환경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러한 주제를 입체, 엔지니어링, 컴퓨터 코팅, 전자공학 등을 융합하여 나타내는 작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저의 작품 활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동희 은퇴권사(성동·광진 교구)

저는 그동안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에 대한 작품

을 주로 작업했습니다. 작년 영락교회 복도에 ‘은혜의 빛’이란 유약이 흘러넘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불 속에서 유약이 넘쳐 녹았는데 그게 정말 제 안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 예수님은 은혜의 빛’ 이렇게 제목을 했더니 독일 전문지에 그 작품을 실어줘서 감사했습니다. 제 작품을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잘못 만든 거 아닌가?”하는데 그게 제 작품의 매력 포인트로 될 수 있겠습니다.



김정자 은퇴권사(종로·성북 교구)

교회 50주년기념관 벽에 걸린 작품 말고 미술을 통한 봉사는 없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성경공부를 통

해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미술인’과 일반적인 ‘미술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성경’ 곧 ‘하나님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있습니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 김정자 은퇴권사, 유화, 493X60cm, 1992년, 50주년기념관

다. 드로잉이 미술의 기초이듯이, ‘성경’을 기초로 할 때, 비로소 기독교미술인은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여 성경을 더 공부 할수록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류정현 청년 편집위원 : 미술 창작활동을 하면서 한국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현하고자 하시는지, 기독교미술인으로서의 소명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집사 : 제가 특히 이번 영락수련원 작업을 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사물을 똑같이 그리고 못 그리고, 드로잉이 좋고 나쁘고, 제아무리 자신의 손 기술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작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며, 표현이 미숙하거나 완벽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후 작업은 은혜였고 거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김갑수 집사 : 저에게 기독교미술이라는 생각이 정립된 게 약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기독교미술인을 구분 짓는 개념도 없었는데, 기독교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전시회를 보면서 이분들을 기독교미술인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나도 기독교미술인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 이혜순 권사, Water color, 26X39cm, 2018년

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독교미술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술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기독교라는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고, 진정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00퍼센트 이 작품을 제작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한스 로크마커 교수의 “통곡하라, 기도하라, 사고하라, 일하라!”라는 말을 인용해 봅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고, 기도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고,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술, 건축, 음악, 경제, 정치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생명의 빛1 | 서동희 은퇴권사, 백자, 33X40X25cm, 2014년

최진희 집사 : 기독교인이고 미술가라서 또는 기독교미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십자가를 그리고 성경책을 그려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며, 삶에서 녹아내려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실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에 더해서 미술인은 미술작품을 통해 보여줘야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동희 권사 : 예배로서 미술을 살펴본다면 우선 예배에는 찬양이라는 요소가 있지요. 그리고 기도와 묵상이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등을 예술로서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일

상의 삶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미술인에게 기도는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최고의 예술가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작활동을 기뻐 받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혜순 권사 :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미술인데, 작업을 통해 보여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 작품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미술인의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다보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를 했나 싶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뭔가 틀에 맞춰 강요만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30년 미술 교사 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설정한 목표치만 놓고 학생들을 다그치지 않았는지 반성해봅니다.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는 교사가 되자!’라고 결단하면서 학생들에게 못 그러도 괜찮고, 그러는데 의의가 있는 거고,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목표에 와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권사 : 나의 미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과는 달리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잠깐 왔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을 때 느낀 것이 있는데 누구나 미국적인 풍류에 다 휩쓸려가는 것이었어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저

사람은 동양인이면서 왜 서양 사람을 흉내 내지? 나는 동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것 같았고, 작품을 하는 중에 한국적인 것을 많이 담아 표현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그리고 소학교(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 처음 왔는데 초가집을 처음 봤어요. 그때 보았던 이미지가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내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나의 작품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누군가의 작품을 흉내도 내겠지만 가끔 적이면 내 작품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서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작품 활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사용한 것이므로 주신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미술인이기 때문에 미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 잘 그렸다는 칭찬만 들으면 기분 나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발견해서 상대방이 싫어할지라도 알려 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침으로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작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미션(선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감사와 더불어 자신의 희생까지도 포함됩니다.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등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윤미 부선임기자 : 마지막으로 한국 기독교미술은 무엇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한국 기독교미술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그리고 오늘날 한국 기독교

미술인이 갖고 있는 고민을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집사 : 이번 좌담회를 통해 홍보출판부 만남지가 미술이란 분야를 집어냈다는 게 큰 발자국, 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은 국,영,수 과목이 매우 중요하지만, 유럽은 아직도 미술이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이제는 미술인을 끌어들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만남지가 이번 좌담회를 마련한 것에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만남지에서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영락교회는 역시 영락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육도 마찬가지지만 미술을 등한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영락교회에서 기독교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고민들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 미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신앙 안에서 통곡하고 기도하며 일하게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서동희 권사 : 서동희 권사 : 바ibles 도자예술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 증언입니다. 이를 위해 저 개인은 영구 상설전시관을 만들어서, 연대와 주제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자예술 작품을 설치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꿈과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시관은 복음선교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진희 집사 : 저는 문인수 집사님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는데 교회 안에서 기독교



바다로부터 온 아버지의 편지 | 최진희 집사, 판유리 유리에나멜물감,
73X43cm, 2017년

미술의 역할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예수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중세시대 이후부터 시작됐던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미술 정착과 미술인 활동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미술을 통해 교회를 꾸미고, 말씀을 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가 미술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 속에서 느꼈던 감동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미술 소재를 통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합니다. 성경말씀을 읽다가 생각나기도 하고, 고민 중에 생각기도 하고, 예배시간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그러면 노트에 스케치

나 드로잉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말로 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그림으로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예전에 바닷가에 가게 되었는데 포르르 말린 나무껍질을 줍게 되었어요. 그것을 줍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 준 거다’라는 생각이 떠오른 거죠. 그걸 펴보면 ‘진히야 사랑한다’는 글이 담긴 편지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고민하다가, 유리병을 만들어서 병 안에 나무껍질을 넣고 ‘바다로부터 온 아버지의 편지’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어떤 페어에 전시했는데, 한 청년이 그 앞에서 떠나질 못하고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뿐인데,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미국에 잠깐 체류했을 때 우리 아이 학교 근처에 거주했어요.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학생들도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면서도 새벽 예배를 나가는 겁니다. 그 청년들의 믿음이 너무 예뻐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면 얼마나 예뻐하실까! 그러면서 ‘새벽이슬처럼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는 말씀과 찬양이 생각이 나서 ‘새벽이슬’이라는 작품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졌어요. 그 새벽이슬을 유리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제가 유리조형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유리조형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대로 ‘빛과 유리와의 관계’로 설명되면서, 빛이 있을 때만 유리는 존재감을 갖게 된다는 것 때문에 그 뒤로 유리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주로 투명유리를 사용하니까 유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빛이 드러나구요, 저도 마

찬가지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면 좋겠는 거죠.

김갑수 집사 : 정말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작품 활동을 하시는군요. 저도 작품 제작과정에서 깨달 았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회화도 생각했지만 제가 잘 할 수 있는 디자인, 엔지니어링,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전시 때 여러 작품 중에 어떤 것을 대표작으로 할지 고심 끝에 당시 이세돌이 알파고와 격돌 해서 완패했던 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앞으로 다가 올 인간의 불확실한 미래와 위기를 표현했던 ‘신 세계’라는 작품을 꼽았습니다. 1년에 걸쳐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분을 다시금 깊이 목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저에게 그 다지 실감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로봇 작업을 하다가 보니 팔이라던지 관절에 들어가는 20개의 모터(액츄에이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로봇 1대를 사람 크기로 만드는데 자연스럽게 억대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처럼 생각하고 피부 감촉도 리얼하게 제작하려면 인간의 가치가 얼마일까? 비록 제가 로봇 1대의 로봇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조금의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진짜 인간의 가치는 수조원이 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락 기독교미술인들이 만나 어떻게 해야 나의 일상생활과 작품 활동에서 예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였다. 토요



신세계 | 김갑수 집사, 모터 20개, CPU 코딩 혼합매체, 230X180X80cm, 2016년

일 저녁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은혜를 나누 다, 올해 90세임에도 11월 전시회를 준비하고 계 신다는 김정자 권사님 기도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마무리하였다. **만남**

제11회 영락미술인회 정기전시회

주 제 : 예수님과 동행

전시일정 : 2018년 9월5일~9월10일

전시장소 : 신상갤러리(종로구 인사동 소재)

특집

거룩한
공회와
예배

- 목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예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 교역자와 함께 걷는 산책
SNS와 신앙 ①

예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예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절대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출애굽일 것이다.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나아가서 신정국가로 성장하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의 민족으로 세우셨을까? 출애굽기 5:3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복음 3:16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



이관형 목사
중구·용산교구
예배부, 청년부, 음악부,
젊은이예배, 안수집사회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이사야 43:21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임을 기억해야 한다.

예배와 삶은 연결되어 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예전(liturgy)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배는 인간의 삶의 중심이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일 것이다.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이 형제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인류 최초의 형제살인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예배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땅의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창4:3), 아벨은 자신이 치던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창4:4).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실패하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동

생을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바로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일어났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떤 예배의 삶을 사느냐로부터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예배가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인의 살인사건으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 그것을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가인의 아들이었던 에녹은 자신이 거주할 성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그 성에 붙였다(창4:17). 인간은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보고자 했다. 그럴듯한 건물을 짓고 그것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싶었을 것이다. 또 가인의 후손이었던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창4:20). 보다 풍요로운 경제활동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야발의 아우였던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창4:21). 인간은 예술을 통해서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삶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 보려고 했다. 또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창4:22). 문명과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미래를 바꾸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과학과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미래는 희망적이지 못하다. 이처럼 예배에서 실패한 인간은 건축, 경제, 예술, 과학

등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썼다. 정말 이런 노력으로 인간의 역사는 바뀌어졌을까? 그렇지 않았다.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입은 작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자신이 상한 것 때문에 소년을 죽이는 또 한 번의 비극적인 살인을 저질렀음을 시인하고 있다(창4:23).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역사와 미래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국 인간의 비극적인 역사는 다시 반복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은 단지 비극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셨다.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노스라는 아들을 주셨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겸손의 고백이다. 그리고 바로 에노스의 시대에 사람들은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창4:26).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예배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 비로소 에노스의 때에 와서야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역사는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무지 바꿀 수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새로워진 것이다.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며,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창세기 4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라

오늘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상황과 형편을 진단해 보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진정한 예배에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풀어가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 삶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거룩한 교회인 교회 공동체는 본연의 임무인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예배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해 본다. **만남**



SNS와 신앙 1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기반 SNS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게 되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핸드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이 기계가 언젠가부터 생활 전반을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폰’,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생활 깊숙이 들어온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SNS’입니다.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입니다. 직역하자면 ‘사회 관계망 서비스’입니다.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한 창구의 역할을 인터넷 상에 옮긴 것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타인과 소통하거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 관심사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형태인 것이지요. 대표적으로는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나 마이크로 블로그(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미투데이 등), 블로그(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다음 블로그 등)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네트워크 서비스는 스마트폰 이전부터 대부분 존재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를 과거에는 지정된 장소와 한정된 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남정열 목사
인천교구
IT미디어부
갈릴리찬양대



터'가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만 SNS에 접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모바일)의 등장으로 인해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든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얼마든지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더불어 SNS 상에서 실시간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이란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기술이 결합

되어서 모든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그렇기에 밖에 있어도 집안 전등의 불을 끌 수 있고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융합'이라는 공통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이 용어는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리된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순간에도 기술은 실시간으로 발전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치 변화가 워낙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무엇이라고 정확히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4차산업혁명의 맥락만을 잡아서 설명하자면 거리나 장소, 시간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스마트폰 기반의 SNS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다듬어진 소통의 사람이 SNS를 거룩한 소통의 창구로 만들어가야

그런데 이러한 기술 혁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외로움에 고통 받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도 없어야 할 터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각지대는 더 커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소통창구는 강화되었지만 정작 소통의 주체인 사람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성장은 책이나 지식,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돌과 돌이 부딪혀 돌을 다듬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격은 이러한 부딪힘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며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인으로써 SNS가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깨닫고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즉, 온라인에서 채울 수 없는 영적 갈급과 성장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심겨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 상의 소통이 가치가 없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활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



게는 좋은 가교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의 SNS의 활용은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온라인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와 줄임말들을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뉘앙스가 보는 사람마다 바뀔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내용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깊고 민감한 문제를 보듬기에는 그 자체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란 단순히 내용전달을 넘어 사람의 눈빛, 제스처, 목소리의 울림 등 오감을 총동원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계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SNS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SNS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필요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남**

- 다음호에 SNS와 청년 2편이 이어집니다.



영락 대학생 눈에 비친 전도 ①

대학부 학생회장 박소민

영락 기독교청년의 삶과 생각을 알아보는 영락 지금! 9월과 10월은 ‘영락 대학생 눈에 비친 전도’라는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아래 이어질 1부는 대학생들이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10월호에 이어질 2부에서는 가까운 변화가인 명동에서의 노방 전도가 대학생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그 현장을 직접 알아보려 합니다. 영락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대학생들은 과연 전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세요!

기획 우대권 편집위원, 오승현·목진경 기자
사진 김태영 객원기자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부 103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박소민입니다.

대학생 입장에서, 전도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렵다(웃음). 어려운 데 해야하는 것. 전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내린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전하면 되는 일,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일.

명동을 보면 길에서 전도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찬양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도 계신데, 마주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생이 많으시고, 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성경에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잖아요.

노방 전도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세상이 변할수록 전도의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마음도 예전보다 닫혀있고, 신천지 등 이단과 사이비도 전보다 다양하죠. 그만큼 더 깊게, 또 더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변화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고수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방법을 제안해 줄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간증이나 나눔보다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턱대고 찬양과 말씀을 전하기보다, 세상 속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교회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는 강좌나 좌담회를 개설해서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차별화된 행동과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전도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어쩔 착하고 바를까’, ‘교회를 다녀서 그럴대’로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대학부에서 전도에 대해 신경 쓰는 일이 있다면?

‘전도 축제’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명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당장 얼마나 많은 장기 결석자가 돌아왔는지, 혹은 새 벗님이 당장 지난주보다 몇 명 더 나왔는지에 신경을 쓰니까 행사 자체가 조금씩 변질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비롯한 환경적인 변화와 더불어, 기획 단계에서부터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들의 삶도 궁금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교회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다는데, 대학부 학생회장으로서 느끼는 점이 있나요?

예배 출석 인원만 봐도 많이 실감하고 있어요. 전보다 신앙도 너무 자유로워진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시대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원이나 공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정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교회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출석해야 하는 곳’이라는 의무감에 다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또 단순히 청년들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예전에 광장에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공부와 교회에 대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스티커를 붙이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한 설문조사니까 교회에 붙여 주시겠지 생각했는데, 공부 쪽에 붙여주신 분들도 못지않게 많더라고요.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또 사역하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





이 돼요. 작금의 문제는 청년 세대나 다른 세대, 어느 쪽의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생 입장에서, 대학생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개인의 삶이 점점 중시되는 사회 풍조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우리 인생을 먼저 잘 살아야 한다고 많이 배우잖아요. 교회보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고, 대학을 간 다음에는 남들 부럽지 않은 곳에 취직하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어려운 삶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혹시 청년들의 신앙과 사역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올해 대학부 수련회를 통해 희망이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청년들이 수련회에 몰입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회복'이라는 주제로 각자의 삶과 각자의 고민들에 관심을 가져주고 또 나누다보니까, 조용했던 친구들도 금세 마음을 열고 서로

더 끈끈한 신앙 공동체로 엮이게 되더라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 청년들의 교회 출석도 다시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학생들과 어른들의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어떤 지도위원 분과 잘 소통된다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의 고충을 말씀하실 때 제가 공감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직후 처음으로 그 분께서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조금 더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또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면, 또 앞으로 그런 소통의 자리를 더 자주 만들면 충분히 서로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회에 꼭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대학부 내에서도 다양한 사역팀 출신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귀하고 고마운 사람들인데, 회장으로서는 미안해질 일이 너무 많아요. 힘들게 회의를 해서 정한 사항이 무너질 때가 많고, 그걸 안 된다는 말 한 마디로 전달해야하니까 너무 미안해요. 물론 모두 각자의 입장이 있어서, 누군가를 탓할 수도 없고, 또 저보다 더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라, 제가 그들의 열정을 다 따라가지 못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통해 꼭, 한 명 한 명 사랑한다고,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자고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학부가 더 마음을 열고 서로서로 의지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모습의 대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항상 기도합니다. **만남**

우선 한 가지, 예수 제자로 살아갑시다



고재길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 문화

숨 막힘, 위선, 분쟁

몇 년 전에 출간되어 최근까지 주목 받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다. 다소 특이한 제목을 붙인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양희송, 2014)이 바로 그 책이다. 여기서 언급된 가나안은 모세가 출애굽해서 찾아갔던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란 기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라. 2014년 통계로 국내의 가나안 성도의 수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저자는 특별히 젊은 대학생들과 청년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3가지 - 숨 막힘, 위선, 분쟁 - 로 정리한다.

먼저, 숨 막힘은 소통의 부재와 존재감의 부정에서 나오는 결과이다. 위선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거나 또는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분쟁은 교회 내의 싸움인데 이것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갈등할 때 나타난다고 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나안 성도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교회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분쟁의 당사자들이 서로 화해한다면 ‘교회 밖 신앙’의 문제는 저자의 소원처럼 해결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 '제자의 윤리'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가나안 성도'의 문제와 '교회 밖 신앙'의 문제를 연관하여 '제자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싶다. 독일 개신교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본회퍼(Dietrich Bonhoeffer)가 강조한 제자의 윤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교회공동체의 머리이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본회퍼는 제자의 윤리를 타자를 위해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실천하는 윤리로 이해했다. 그는 우리가 이미 주지하고 있듯이 독일 제3제국의 총통이었던 히틀러(Adolf Hitler)의 나치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웠다. 그 결과, 1945년 4월 9일에 플로센부르크(Flossenbürg) 정치범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때 그의 나이는 39세였다. 본회퍼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의 신학과 삶의 교훈은 지금까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면 제자의 윤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제자의 윤리-1,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것

먼저, 제자의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것이다. 본회퍼는 산상수훈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 회개했다. 그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신학강의도 하고, 설교도 자주 했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그의 확신에 의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공명심과 세속적인 야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던 자신의 비기독교적인 삶을 철저히 반성하였다. 이러한 그의 회개와 결단은 독일 교회의 갱신과 목회사역의 갱신을 목표로 하는 그의 새로운 삶을 형성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제자의 윤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게 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일치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이것은 적어도 신앙을 사적 유익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제자의 윤리에서 시작될 수 있다. 제자의 윤리 안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나안 성도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엿보인다.

제자의 윤리-2, 믿음과 순종이 일치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

둘째, 제자의 윤리는 믿음과 순종이 일치하는 삶을 실천하는 윤리를 가리킨다. 제자의 윤리는 “값싼 은혜”를 비판하고 “값비싼 은혜”를 강조한다. “값비싼 은혜”는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값 비싼 대가를 지불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값비싼 은혜”이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값비싼 값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한다. 즉,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아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과 말씀 앞에서 “단순한 순종”으로 응답한다. 믿음은 “오직 순종 속에서만” 그 가치를 획득

득하고, “순종의 첫걸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대부분의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정치적 메시아로 고백할 때, 본회퍼는 오직 나사렛 예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그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은혜와 순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했다. 믿음과 행위의 깊은 상관성을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 한국교회를 점점 이탈하고 있는 ‘교회 밖 신앙’의 모습은 점점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제자의 윤리-3, 고난 받는 삶과 예언자적 삶을 실천하는 것

마지막으로 제자의 윤리는 고난 받는 삶과 예언자적 삶을 실천하는 윤리를 의미한다. 제자의 윤리의 범주는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까지 포함한다. 제자의 윤리는 개인의 내면적인 삶이나 또는 개인 윤리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윤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자의 윤리는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와 지역사회 및 국가들의 영역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행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는 제자의 윤리는 예언자적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본회퍼는 하나님을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인간의 짐을 지고 가는 분이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들이 된다(갈 6:2). 여기에서 언급되는 짐을 죄, 고난, 아픔 등등의 단어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자의 윤리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게 할 것이다. 또한 제자의 윤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힘쓰고, 약한 그들을 변호하면서 살아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낸다면 교회는 젊은 세대가 떠나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찾아오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 가지, 예수 제자의 윤리를 지향하고 실천하기

결론의 자리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2017년 3월에 발표한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결과’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응답한 사람의 51.2%가 한국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거나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0명 가운데 약 5명이 한국 교회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이다. 교회가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삶을 본받는 제자의 윤리 안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필자의 지나친 생각일까? 이제 한국 교회가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제자의 윤리를 지향하고 실천함으로써 ‘가나안 성도와 교회 밖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공동체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만남**

이달부터 문을 연 ‘한권의 묵상’ 섹션은 「만남」 독자들의 궁금함과 주님 사랑의 열기로 시작되었다. “당회에서 김운성 위임목사와 당회원들이 서로 추천한 도서를 독서하고 토론한다”는 소식을 독자들이 듣고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우리도 함께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나눌 수는 없는지”, 이런 문의가 많이 있었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한권의 묵상’ 섹션을 개설한다.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 읽고 나서



“내면생활을 정돈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매우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내면세계란 무엇이고 이를 위한 규칙적인 시간관리란 또 무엇이란 말인가?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홍화옥 역, IVP, 2003)을 읽고 나서 얻은 자문(自問)이었습니다.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과의 관계성이 너무 모호하게 다뤄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내면세계의 질서를 위하여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영적 성장을 위하여 내면세계의 질서를 구하라는 이야기인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읽어 나갈 때, ‘내면세계란 속사람을 말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관련된 부분을 다시 읽어야 했으며 또 요구하는 말씀과 적당한 답을 작성해야 하는 공리가 필요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내면세계’는 ‘세상에서 쫓겨 다니는 삶’과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삶’을 구별 짓는 핵심단어인데,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너무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점정리를 하며 읽어 나가면서 한경직(韓景職) 목사님의 설교 모음집을 읽어 보다가 ‘마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내면세계’와 같은 의미와 뉘앙스를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도 잠언을 인용하면서 ‘마음=내면세계’임을 암시하고 있었지만 아마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가 ‘다른 어떤 위대함보다 영혼의 위대함을, 다른 어떤 부요보다 마음의 부요를 숙고해라’라는 저자의 주장을 통하여 확실해짐을 보았습니다.

다시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읽었을 때는 앞서 핵심이 빠진 책이라는 선입관이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교회적으로도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는 착각을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지적에 새삼 공감하면서 저의 변화를 일깨우게 되었고 이는 바로 이러한 대(大)주제를 풀어가는 출발지가 되었습니다.



이종근 장로
동대문·중랑교구
고등부 부장



사람들은 성공을 목표로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과 존경받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과 명예를 통한 세상적인 부를 성공의 잣대로 두면서 개인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재물과 세상적인 행복을 얻기 위하여 더 처절하게 투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이러한 처지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섬김에 충성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성공 하고픈 욕망이 앞서서 세상적인 투쟁으로 얻은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착각으로 믿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을 ‘쫓겨 다니는 삶’이라고 명명했으며 이러한 ‘쫓겨 다니는 삶’은 세상적인 성공의 잣대를 우선적으로 먼저 구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적

인 성공의 자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부름 받은 삶’으로 명명하여, 욕망을 버리고 자신의 본분을 확실하게 자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이를 ‘새장에서 벗어난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쉼과 잠시 멈춤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저자는 성경 인물 중에서 ‘쫓겨 다니는 삶’으로 사울(Saul)을, ‘부름 받은 삶’으로 세례 요한(John the Baptist)을 사례로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성공한 인물로 분석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재물과 부를 가지고 있었고 용모도 훌륭했고 체격도 장대했으며 겸손한 사람이었으나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은 변했습니다. 아마도 성공한 왕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았는지 또는 작은 지파의 자손으로 왕이 되어 권력의 유지와 확고함을 얻기 위해, 또 왕이 가지는 권력과 화려함에 도취되어,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을 우선적으로 여기게 되어 성공과 욕망을 위해 자신과 대비되는 경쟁자들에 대한 불안과 비탄 그리고 투쟁으로 얽힌 쫓겨 다니는 삶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인 사가랴(Zecharias)의 자손으로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나실인(nazirite)으로 살았으며 예수님이 메시아(Messiah)임을 증거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자각하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벗어나지 않는 삶 즉 부름 받은 삶을 통해 사울과는 대비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사울의 삶처럼 세상에서 성공한 삶이 무엇이 나쁘냐고 의아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삶의 좌절을 경험하는 함몰 웅덩이는 그들과는 상관없는 그저 다른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부름 받은 자의 삶을 선택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하며 우리들



6월 30일(토) 환경직목사기념관 지하에서 열린 당회의 첫번째 독서포럼 모습

이 바로 그러한 신앙의 멘토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대대로 훈장 가문 이었고 어린 학창 생활은 평탄했고, 가정도 경제적 안정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좋은 직장도, 해외유학도, 하고 싶은 일도, 행복한 가정도, 작은 명예도 얻는 삶을 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모태신앙으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이었지만 대학에 입학하고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시작한 교회 섬김은 해외에 나갔을 경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쉬어 본 적이 거의 없이 지금까지 무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34년간 창원과 서울을 오르내리는 데 문제가 없게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저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축복받았다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의 섬김을 통해 오히려 공적 삶의 성공을 의식하지는 않았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혹시나 착각하고 오해해서 잘못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하여 노력한 것처럼 교회에서 쌓은 저의 공적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구걸하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으려 노력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지 못하고 주도권이 항상 나에게 있어서 스스로 성과를 내야만 하겠다고 여기는, 성공을 위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삶을

사는 저는 교회 내에서조차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통해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것을 나름대로 그려볼 때, 저의 마음에 주님은 분명히 모셔져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모셔져만 있는 것이고 저의 내면에는 주님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무중력상태에서 떠다니며 충돌하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면서 사탄이 유혹할 기회를 쉽게 내주고 마는 상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을 모셔만 두지 말고 주님과 진정으로 교류하며 교제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강조하였듯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균형 있는 강한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요한 곳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와 중보 하는 기도생활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진실 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또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한 나의 방법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책을 덮으며 앞선 질문인 ‘나는 마음을 정돈하는 규칙적인 시간 관리와 영적 성장 방법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라고 제 스스로에게 반문해 봅니다. **만남**



누군가 “요즘 괜찮아?”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나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어른만 되면 사고 싶은 것들 마음껏 살 수 있을 거야.’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다. 대학생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할 거야.’ ‘빨리 취업만 되면 남들 보란 듯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빨리 승진만 되면 훨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 좋을 거야.’ ‘빨리 결혼만 하면 이렇게 외롭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또 생각하는 고민거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고민의 특징이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결코 결핍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우리의 행복을 확정되지 않은 막연한 미래로 유보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만 정체돼 있는 것 같나요? 모두가 가진 그것을 나만 갖지 못한 것 같은 답답함에 한숨 쉬고 있나요? 남들은 끊임없이 위를 향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만 우두커니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나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요즘 괜찮아?”라고 묻는다면, “안 괜찮아”라는 대답이 불쑥 떠오르시나요?



신주현 목사
서울백병원 원목
영락교회 직장인예배

세상 평가의 노예가 되어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건 아닌지?

이상할 것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참 안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고 타인과 비교당하며 경쟁하도록 요구받는 현대 사회에

서는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함,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만이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들 앞에서 칙칙하기만 한 자신을 보며 허탈함, 막막함, 혼란, 자책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긍정적 사고로 마음을 재 정비하고 열심히 달려보지만 그럴수록 나의 한계가 더 크게 다가오는 왜일까요? 발버둥 치지 않으면 현상유지조차 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우리는 쉴 새 없이 스스로를 북아댑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취와 사람들의 인정, 칭찬의 노예가 되어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유한하다는 것, 행복의 가치를 둘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때에 따라 다르며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하늘을 나는 것같이 높던 인기도 순식간에 식는가 하면,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대한 평가도 시대마다 사람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평가와 평가로 기인한 성취에 나의 행복을 잇댄다면 우리의 삶은 가느다란 줄에 매달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위태로운 연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이 줄이 끊길까, 더 큰 바람이 몰아치면 어떻게 하나.’

사람의 평가에 목매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그의 완전한 시간표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삶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행복은 이미 누려왔던 것, 우리 모습 안에 있던 것!

“목사님, 숨 한 번만 제대로 쉬고 싶습니다. 호흡기 빼고 찬양을 불러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백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환자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계시겠지만, 그분에게는 자유로이 숨을 쉬는 것, 그래서 가느다란 목소리라도 제 힘

껏 찬양을 부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생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필요한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미 누려왔던 것이었고 우리 모습 안에 있던 것입니다.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숨을 쉬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 때로는 음이탈 나서 부끄럽지만 목소리 높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이 선물하신 현재를 감사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맡겨버릴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목사님, 우리 언니를 만나주세요.” 오전 6시, 위독한 상황에 문자를 받고 백병원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암 말기 환자였는데,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고통스러워하며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병상에 계셨습니다. 저는 환자가 통증이 약해지고, 병이 나아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지금 놀리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고, 그 뒤로 여러 차례 찾아가서 그 환자와 만나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분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건강이 호전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세례받던 날 깨끗하게 목욕재계를 하고 기다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며칠 전 그분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하루하루에 소망을 발견하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보겠노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을 살아 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죽음의 문턱에 놓인 그들의 두려움과 고통이 그대로 고스란히 저에게도 느껴집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루’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루를 얼마나 잘 살아 내는지가 중요합니다.

행복,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만족할 줄 아는 것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완벽하게 해냈는지를 인정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뜻밖의 상황 때문에 일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노련하지 않을 뿐, 알고 보면 우리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누가 요리했는지에 따라 다른 맛이 나듯이,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세상 어딘가에 꼭 필요한 단 하나의 퍼즐 조각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퍼즐 조각을 맞추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해 주시기 위함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바로 우리를 향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것도 부족하고요. 이것도 못하고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못했구요.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했어요”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괜찮다.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이거 하면 용서해줄게”가 아닙니다. 그저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자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특별해짐’을 쫓다가 주님이 주신 ‘특별함’을 잊지 않아야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나도 소중한 나입니다. 평범한 누군가도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말하는 일률적인 ‘특별해짐’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특별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눈에 누구보다 반짝이는 보석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과거 혹은 미래에 매여 현재를 지워버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도 괜찮다고 해주시려고 오셨음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고백하며 힘차게 살아보는 우리네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



야곱의 세대, 주님과 여름을

야곱의 세대, 아브라함의 시대를 넘어 '영락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 '야곱의 세대'가 주님과 동행하는 2018년 여름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호에서 전한 영아부 등의 여름수련회 소식에 이어 이번 9월호에 유아부, 아동부 등의 소식을 전한다.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교회야~ 마을로 가자!

2018년 7월 14(토)~15(주일) 양일간, 유아부에서는 '교회야~ 마을로 가자!' (마 9:35)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다. 올해는 작년 주제('예수님 따라 홀리 사랑하며 홀리')의 연장선 상에서 거룩한 삶의 영역을 세상으로 확대하여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에서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4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성서학습과 특별학습에 참



여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전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는 마을로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후 이어진 즐거운 물놀이 시간에는 한여름의 더위를 시원하게 밀어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교제의 시간을 누렸다.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로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한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를 넘어 마을 속으로 가득 퍼져 나가기를 소망한다.

제공 유아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교회야 마을로 가자!

2018년 7월 21(토)-22(주일) 이틀 동안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교회야 마을로 가자! (마 9:35)’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6세 7세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며, 신나는 찬양과 재미있는 연극을 통해, 마을로 사랑을 전하러 다니셨던 예수님처럼 교회도 마을에 가서 사랑을 전해야 함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이후 진행된 성서학습과 특별학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즉 교회가 마을로 나아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유치부 어린이들과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을 곳곳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함을 깨닫고 결단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낮은 곳으로 다니시며 사랑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마을로 가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을 매일 도전하는 유치부가 되길 소망한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제공 유치부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나는 왕의 자녀예요!

2018년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27(금)부터 29(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양주 딱따구리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됐다. ‘나는 왕의 자녀예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성경 공부, 성경을 체화하는 심화 활동, 창조-타락-구원으로 연결되는 방 탈출, 신나는 찬양, 예배 및 기도회 등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유

년부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녀임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하는 시간이 됐다. 이번에 받은 은혜와 깨닫게 된 말씀을 늘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제공 유년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The Gospel

초등부 어린이들이 7월 27(금)~7월 29(주일)까지 강화도 성산청소년수련원에 복음 패키지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The Gospel'로 초등부 어린이들이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통해 회복되며, 나아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귀한 여정이었다.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성경 공부, 주제 활동 'I love you', '방탈출 가스펠', 물놀이 및 동(童)계 올림픽, 예배 및 기도회를 통해 초등부 어린이들이 죄의 도시를 떠나 구원의 도시로 여행하며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초등부 친구들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전도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누리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제공 초등부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복음, 우리의 유일한 희망

기대하며 기다리던 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지난 7월 27(금)부터 29(주일)까지 영락기도원에서 있었다. '복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소년부 여름성경학교에는 어린이 164명과 교사 81명이 함께했으며, 모두가 복음을 깊이 맛보고 복음전도자로 성장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복음, 회개, 사랑, 성장'이라는 주제로 4회에 걸친 재미있는 공과와 은혜 넘치는 예배가 드려졌고, 저녁 기도회가 끝나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방탈출, 미니올림픽, 아쿠아랜드 등으로 알차게 구성된 다양한 주제 활동과 물놀이 시간은 찌는 듯한 더위도 잊게 할 만큼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가득 넘쳤다. 2박 3일의 일정 동안 아낌없이 헌신해주신 선생님들, 마음을 다해 기도해주신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일정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공 소년부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사랑충전! 세상의 빛으로!

지난 7/27(금)~29(주일) 3일간 양평에 있는 코바코연수원에서 사랑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됐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사랑부의 성경학교에는 ‘사랑충전! 세상의 빛으로!’(마 9:35)

라는 주제 아래 사랑부 학생 46명, 교사 55명, 가족 5명, 자원봉사자 26명 등 총 132명이 참여했다. 진행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첫째 날에 성서학습과 물놀이, 세족식이 있었으며, 둘째 날에는 조별 연극발표와 캠프파이어가 있었다. 셋째 날에 진행된 달란트 시장에서는 평소에 감사함을 느꼈던 분들에게 달란트로 구매한 물품을 선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제공 사랑부



아동부 축구캠프 One Team, One Spirit, One Goal

2000년도부터 해마다 열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아동부 축구캠프가 지난 8월 1(수)~4(토), 3박 4일간 설악동수양관과 속초종합경기장에서 있었다. 30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석한 이번 캠프는 ‘One Team, One Spirit, One Goal’이라는 주제 아래 알차게 진행됐다. 참가한 학생들은 축구를 통하여 체력훈련, 기술훈련, 리더십훈련, 영성훈련을 받으며 유익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교사로 국가대표 출신의 감독, 스포츠학과 박사, 국가대표 전력분석관, 축구교실 출신의 대학·청년부 선배들, 대한축구선교협회회원(장신대 신대원생) 등으로 구성된 12명의 지도층과 식사 및 생활지도를 맡아주시는 6명의 권사님들이 섬겨주셨다.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섬김이 참가한 학생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데 사용되기를 소망한다.



제공 아동부



CebC Ice Day Cool하게 하나 된 여름

8월 5일 주일 CebC Ice day가 영락교회 교육관 4층에서 진행됐다. 질서 있고 화평한 CebC를 위해 각 반 선생님들의 주도 하에 Ice day 규칙을 읽으며 시작됐던 올해 CebC Ice day는 유난히 무더운 올여름 잠깐

이나마 더위를 잊기에 충분했던 시간이었다. 영락 CebC 공동체의 모두가 시원한 빙수를 만들어 먹으며 기쁨으로 하나 되는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기쁨과 질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Ice day의 가장 큰 소득은 질서 있고 화평한 CebC는 우리 모두의 헌신과 섬김과 기도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동일한 은혜가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제공 Cebc

중등부 여름수련회 믿음의 모험

7월 27(금)부터 29(주일)까지 3일간 충남 태안에 위치한 '청포대 섯셋수련원'에서 약 270여 명의 교역자, 교사와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중등부(부장 김재완 장로) 여름수련회가 진행됐다. '믿음의 모험'이라는 주제로 오랜 기간 기도로 계획하고 준비한 이번 수련회는 여름 방학을 맞은

중등부 학생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기억해야 할 '거룩함'을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간 지쳐있던 영육 간의 휴식을 갖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됐다.

“여호와와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여호수아 5장15절) 말씀을 주제로 집회, 찬양, 기도, 물놀이, 팀별활동, 캠프파이어 등 교역자와 교사들이 기도하며 준비해온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과 '공동체성'을 기억하게 됐으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개하고 거룩함을 결단하는 귀한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됐다.

취재 박진현 기자



진정한 섬김의 사람

나는 섬김을 받고 싶다. 누구나 나처럼 섬김 받고 싶어 하고, 또 그것에 익숙할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우리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섬겨야 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섬김을 받은 것일까? 왜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일까?

2018 고등부 여름수련회 주제는 ‘섬김’이었다. 사실 처음 수련원에 도착해서 벽에 붙은 수련회 주제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를 읽었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았다. 첫날 오전 예배시간에 목사님이 마가복음 10장 35절~37절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한 내용을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높아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로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김소현
고등부 1학년

이어서 조별로 장소를 돌아다니며 경쟁했는데, 어느 때와 다름없이 서로 이기기에 열심인 시간이었다. 이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모인 저녁집회에서는 김운성 위임목사님께서 ‘THE ONLY ONE’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장기려 박사님을 예로 들며 섬김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 그분은 가난한 이에게는 무료진료를 해주고 여의치 않으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한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 정도의 섬김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첫째 날을 돌아보니, 높아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경쟁하는 우리 사회의 원동력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섬김의 원동력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날, 물놀이 후 저녁집회에서는, 임현우 목사님이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섬김을 행 하셨기에 우리 역시 스스로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연장선에서 진행된 시간이 세족식 기도회였는데, 발을 씻겨주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섬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본 시간이었다.

셋째 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새삼 날이 정말 덥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수련회를 섬겨 주신 분들을 떠올려 보았다. 수련회에 누구보다 더 신경을 쏟으셨을 고등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여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학생회, 집회 때 앞에서 찬양과 춤으로 예배드린 호산나와 워십댄스반, 흔쾌히 조를 섬겨 주신 조 담당 선생님들과 조장들, 정

〈대학부 단기선교 간증〉

부하이팀, 필리핀에 생명을 전하다

8박 9일 동안 필리핀 단기선교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 번 경험했다. 다른 선교 팀에 비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필리핀에서 했던 전도사역, 공연사역, 교육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필리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것으로 인



말 많은 분들이 묵묵히 뒤에서 수련회를 섬겨주셨다. 이제는 나도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고, 그리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섬김 받는 것이 익숙하지만 앞으로는 섬기는 것이 익숙해질 수 있기를, 아직까지는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건휘
대학부 42기

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영혼에게라도 깊게 복음을 전달하려 했다. 각 집마다 5분 정도 머물면서 그들에게 열심히 설명했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몇 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달한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우리 부하이팀이 준비했던 공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언극이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 인지, 악마들의 끌림에 여지없이 끌려 다니는 모습과 그걸 안타깝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실제로 악마의 유혹과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무언극의 결말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보면서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결말이 나오기를 바랐다.

여러 활동들로 피곤했지만 밤에 팀원들과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며 개인적인 삶과 아픔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로 인해 서로 돈독해지면서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필리핀 영혼들에게 전하는 선교활동이었지만, 팀원들끼리도 믿음을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 선교를 가게 된 것은 한 친구의 끈질긴 설득이 계기가 됐지만,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것이 큰 이유였다. 그 실마리를 찾으러 이번 단기선교를 갔는데 내

가 세상의 목표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간과하고 지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경험 하나만을 붙잡고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지 않았던 나의 마음이 너무 교만했음을 느꼈다. 또한 정체되어 있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고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나의 속은 텅 비어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에게 필리핀 선교와 부하이팀은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과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필리핀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은혜롭고 신앙적으로 많은 걸 얻을 수 있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락 대학부와 청년들에게도 단기선교를 추천하고 싶다.

〈호산나찬양대순회연주 후기〉

할렐루야! 땅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라

안녕하세요. 호산나찬양대를 총무로 섬기고 있는 조현범입니다. 아름다운 20대 청년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이는 부서를 알고 계시나요? 바로 주일 4부 예배를 섬기고 있는 호산나찬양대입니다.

웃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7월의 무더운 폭염을 뚫고 제36회 순회연주를 대전, 공주, 양산을 거쳐 부산 땅끝까지 다녀왔습니다. 군 복무 중이거나 직장 다니는 대원을 비롯해 순회연주를 위해 각자의 개인적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다 같이 순회연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대원들이 점점 줄어가는 와중에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하며, 순회연주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순회연주 기록으로는 최소 인원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순회연주를 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서로



조현범 성도
마포·영등포교구
호산나찬양대 총무

유대감을 형성해 뚝뚝 뭉칠 수 있었습니다. 여는 예배 중에 위임목사님께서 “너희들이 노래를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순회연주에 갈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새겨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대원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회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첫 연주장소인 대전에 있는 대덕한빛교회는 영락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들이 계셔서 낯설지가 않았습다. 그리고 가족과 같은 사랑의 눈빛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총 4번의 연주 중 가장 적은 인원이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첫 연주를 잘 마친 후, 두 번째 연주장소인 공주 라파스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시



내와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웅장한 홀이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쇠약하신 환우분들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었지만 정말 존경스러웠고 고마운 마음으로 감동했습니다. 준비한 찬양이 끝난 후, 열찬 박수와 힘차게 반복해서 외쳐주시는 환우분들의 앙코르가 힘이 되어 더 열정적으로 찬양 드렸습니다. 찬양이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힘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된 연주였습니다.

다음 날 주일 오전에 양산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와 다른 예배 형식에 대원들은 긴장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더욱 집중하여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해주신 식사를 맛있게 먹으며 감사의 마음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마지막 연주는 부산 영도구에 있는 땅끝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땅끝교회는 김운성 위임목사님께서 지난 28년 동안 온 마음과 정성으로 시무하셨기에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마치 고향 집을 방문한 것 같았습니다.

이번 3박 4일간의 연주일정은 더운 날씨와 숙소 변

경 및 많은 인원의 장거리 이동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찬양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깊은 애정으로 하나 되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임을 호산나 찬양대원에게 깨닫게 해주신 여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부르신 곳에는 언제든지 찾아가 사명 다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엔 부른 “예수 귀하신 이름”이라는 찬양 제목처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해마다 순회연주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깨닫는 것은 오히려 성도들을 통해 은혜받는 것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호산나찬양대는 20대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매년 국내외 순회연주를 하는 기간에도 Q.T 묵상 등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제36회 순회연주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사고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8월 12일(주일) 4부 예배 때는 양산중앙교회 할렐루야찬양대에서 답방 연주를 오셔서 저희 호산나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함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만남**

4부 예배 호산나찬양대 대원모집

자 격 : 20대(만19세~28세) 청년(전공자, 비전공자)

연습 장소 : (토) 교육관 301호 (주일) 교육관 201호

연습 시간 : (토) 오후 4시~오후 6시 (주일) 오후 12시~1시

문 의 : 총무 조현범(010-5470-6021), 음악부(02-2280-0151)

새로운 선교지 T국에서 동북아 선교까지

하영인 T국 선교사
청주 상당교회 파송선교사

새로운 선교지를 위한 기도

2013년 8월 오랫동안 섬겨왔던 선교지 동북아에 비자발급 거부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영락교회는 이후 3년 동안 한국 내 동북아 유학생 선교사역을 하면서 장신대에서 신학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3년 동안 영락교회에서 동북아 예배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박사 학위(Th.D. 선교신학전공)를 받을 수 있었다. 선교사역을 감당 하면서 주 파송교회가 변경되었지만(2017년 청주 상당교회에서 파송), 지난 십수 년 동안 영락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 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수종을 든다. 선교사 역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 3년간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선교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보내시는 선교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든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금까지 동북아 선교사로 살아온 나를 동북아와 전혀 동떨어진 환경 속으로 몰아가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 십 몇

년 동안 해오던 선교사역은 물론, 최근 한국에서의 사역이나 장신대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게 하신 것 등과 전혀 관련 없는 낯선 사역을 맡기시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오히려 비록 동북아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동북아 선교를 이어갈 수 있는 곳으로 인도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새로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T국을 새로운 선교지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T국

선교지역 현지교회





동북아어 예배 1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마치고

은 비록 전체 인구 6천7백만 명 가운데 95% 이상이 불교를 믿는 나라이지만, 동북아와 인접하고 있으면서, 전체 인구의 약 12%에 육박하는 700만 명의 동북아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북아 유학생들과 상인들, 자녀교육 목적으로 오는 분들, 여행으로 오는 분들 등등 수많은 동북아인들이 T국의 수도 B지역은 물론 T국 전역으로 몰려오고 있다. 또한 T국은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이면서 동남아시아의 중심으로 허브 역할을 하는 나라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T국 교회와 T국 내 동북아 교회를 통하여 T국으로 몰려오는 동북아 선교를 감당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T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은 물론 특히 동북아 대륙 선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 B지역 S교회와의 만남

T국을 새로운 선교지로 결정한 후, 2016년 9월

추석연휴 기간을 이용하여 T국의 본 교단 선교사회의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선교사 허입 인터뷰를 하였다. 그리고 T국에서 며칠을 더 머무는 중, 주일을 맞이하여 B지역 시내에 있는 S교회라고 하는 동북아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 교회는 122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영락교회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 1896년 동북아 G성 C지역에서 이주해온 분들 가운데 7명의 성도로 시작된 이 교회는 현재 재적교인 1,600명에 매주 출석교인은 약 700명 정도다. T국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 비하면 이 교회는 T국에서 아주 큰 교회라 할 수 있다. 영락교회가 여러 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듯이 S교회 또한 두 곳의 기독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회 내에 8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기독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고, 교회 밖에는 유치원과정에서부터 고교과정까지 있는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T국기독교학교가 있다.

S교회는 비록 동북아 교회이지만 표준어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방언 가운데 하나인 C지역 언어와 T국어를 병용하여 예배를 드린다. 후손들이 점차 지역 언어를 잊어가고 있고, 동시에 동북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동북아 표준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날 뿐 아니라 동북아인들이 T국으로 몰려오면서 동북아선교 차원에서 표준어를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난 3-4년 전부터 동북아어 예배를 신설하고, 이 사역을 감당할 목회자를 찾기 위해 기도해오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온 유학생들과 동북아 표준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매주 일 오후에 성경을 공부하고 친교를 나누는 모임이 있었다. 마침 처음 방문한 주일에 그날 원래 말씀을 전하기로 하셨던 분이 사정으로 못 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모임 후 모든 참석 성

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동북아어 예배사역을 맡아주세요. 우리는 동북아어 예배를 감당하실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 3년 동안 기도해왔습니다. 꼭 우리 교회에 오셔서 동북아어 예배를 맡아주세요”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S교회에서의 첫 만남, 특히 동북아어 모임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향후 T국에서의 선교사역의 방향과 가능성을 보여준 하나님의 청사진이요 축복이었다.

2016년 12월 B지역 S교회로부터 연락이 왔다. 2017년 새해를 앞두고 다시 만나 향후 사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었고, 다시 한 번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탄절 연휴를 이용하여 S교회를 다시 찾게 되었고, 이날 미팅에서 S교회는 2017년부터 동북아어 예배사역을 맡아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T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의 비



동북아어 예배 찬양

자와 관련된 일들을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했다 (선교사 신분으로 가기에 사례는 별도로 받지 않음을 밝힌다).

T국에서 동북아어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다. 하지만 나는 한국 선교사로서 T국 선교를 위해 가는 것이지 단순히 S교회의 동북아어 예배만을 위해 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다. S교회의 동북아어 예배사역 또한 T국 선교의 하나이기에 기꺼이 수용하면서도 S교회뿐 아니라 앞으로 T국 선교와 동북아 선교를 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비전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 S교회는 이러한 나의 비전에 흔쾌히 공감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

새로운 선교지 T국으로: 동북아어 예배 창립예배

일 년 내내 더운 T국에서도 3월은 특별히 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달이다. 3월 7일에 새로운 선교지 T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도착하자마자 더운 맛을 톡톡히 보았고 어찌나 더운지 가만히 있어도 이마는 물론 등줄기에서 땀이 줄줄 흘렀다. 게다가 기후가 몹시 습해 더욱 힘들었고, 매일 밤 서너 번씩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숙면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처지고 쉽게 피곤했다. 앞으로 극복해야 할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선교지 T국 B지역에 도착한 후 3월 12일 첫 주일을 맞이했다. 오전 10시에 드리는 예배시간에 전 교인들에게 동북아어 예배 담당목사로 부임인사를 했다. 예배 후 온 성도들이 손을 잡아 주며 반갑게 인사를 하고 맞아주었다. 한국 기독교 역사와 버금가는 122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S교회의 동북아어 예배 담당 사역자로 부임 받은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인도 T국인도 그렇다고 동북아어를 사용하는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의 현지인도 아닌 한국인인 내가 사역을 맡게 되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동북아 선교사임에도 다시 동북아에 들어갈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선교지 T국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3월 26일 주일 S교회 동북아어 예배가 처음으로 드려졌다.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동북아어 예배를 통해 귀한 일들을 행하셨다. 현재 4,50여 명이 매주 동북아 표준어로 예배를 드린다. 앞으로 이 동북아어 예배를 통해 이곳 B지역에 들어오는 동북아 유학생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오는 동북아인들, 직장이나 여행으로 들어오는 많은 동북아인들을 선교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어 예배에 참석하는 동북아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제자 삼아 동북아 대륙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기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현재 T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 S교회뿐 아니라 T국 교회들을 잘 섬겨 T국 교회가 인도차이나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쓰임 받기를 기도한다. 특별히 T국뿐 아니라 동북아의 교회와 사역자들과 연계하여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는 ‘목회자 아카데미’를 실시하고자 한다.

21세기 선교는 무엇보다도 협력선교(빌 1:27)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선교지의 S지역 교회와 후원 교회인 영락교회, 그리고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들과의 돈독한 협력을 통하여 T국과 동북아 선교를 은혜로이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만남**

'신단녀'에서 '선교자'로의 변화

영락선교훈련학교 1단계를 마치고



정은미 성도
서대문·은평 교구

‘경단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는 늦은 결혼과 40대 출산으로 인해 ‘경단녀’가 아닌 ‘신단녀’가 되었습니다. 직장 and 연년생 두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힘겨워 청년부를 마치고 유아부 교사를 그만 두고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였기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늘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으로 인해 신앙의 단절녀가 된 듯했습니다.

신앙아카데미를 통해 체험한 하나님 사랑

청년부 때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 도망치듯 교회를 빠져 나오곤 했습니다. 청년 때는 듣고 나누었던 말씀과 교제, 하기선교봉사와 해외선교 훈련을 통한 활동들로 인해 때론 사람과 일에 지치며 위축될 때도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때는 정말 잘 몰랐습니다. 마음의 갈급함으로 새벽기도와 주일예배를 드리며, 청년부 때 활동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때론 무감각하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평소 잘 보이지 않던, 후보에 소개된 성경공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5월 19일 영락선교훈련학교 1단계 수료식을 마치고



신앙아카데미를 통해 성경공부를 등록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성경공부에 임하리라 다짐하고 또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신앙아카데미를 통해 안영순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권사님을 통해 좁았던 저의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되었으며, 권사님의 권면으로 선교훈련학교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1992년 해외선교훈련과 두 번의 짧은 해외선교봉사를 통해 한때 자비량 선교사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당시는 선교에 대한 열정만 있었을 뿐 말씀 훈련이 부족했고 영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였는지 그 당시의 열정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식어 갔고 차츰 저에게 그런 소망과 비전이 있었음도 잊혀져 갔습니다.

올 3월 시작된 선교훈련학교 개강예배를 드릴 때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강의가 있던 날, 먼저 찬양으로 드리는 시간에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돌고 돌아 이제야 이 자리에 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기다려주셨음을 제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다할 수 없는 벅차오름과 감동이 저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선교의 자리

매주 진행되는 교수님들과 선교사님의 강의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교의 실상들은 그 어떤 메시지보다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까지 가졌

던 선교적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저의 무지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며, 제가 있는 이 자리가 선교의 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이나 매체를 통해서만 늘 접해 오던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역을 직접 방문하였을 때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걸고 오신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드러지는 외국인 예배에 참석해 보며 그들을 섬기시는 분들의 수고와 사랑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맡겨주신 모든 것에 충성

이제 선교훈련학교 봄학기를 마치고, 월 1회 열방예배를 기다리며, 가을부터 시작될 선교훈련학교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밖에서 우리가 문 열기를 기다리시는 것은 비단 복음에서만 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시길 원하십니다. 보잘 것 없는 저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집사교육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맡겨주신 모든 것에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며 교회 안에 넘쳐나는 소망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하박국 2:13-14) **만남**

▶ 상영 장소 및 시간 : 50주년기념관 지하1층 소강당, 주일 오후3시



순교자 틴데일 (God's Outlaw, 1986)

감독 : 토니 튜

주연 : 로저 리스

장르 : 드라마 상영시간 : 1시간 34분 등급 : 전체 관람가

틴데일은 많은 사제들이 라틴어를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신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그는 부유한 가정의 가정교사가 되고, 마을 교회에서 설교한다. 틴데일은 우리가 행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 그의 설교가 지역 지도자들을 분노케 하자 그는 런던으로 옮겨간다.

2일



(상)9일 (하)16일

레미제라블

(Les Misérables, 2012)

감독 : 톰 후퍼

주연 : 휴 잭맨, 러셀 크로우, 아만다 사이프리트, 앤 해서웨이, 헬레나 본햄 카터

상영시간 : 2시간 38분 등급 : 12세이상관람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우연히 만난 신부의 손길 아래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결심한다. 사랑과 믿음, 분노, 역사의 진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빅토르 위고의 원작을 휴먼드라마로 엮어낸 뮤지컬. 민중의 노래 등 귀에 익은 넘버들이 뛰어나다.



언터처블 : 1%의 우정 (Untouchable, 2011)

감독 : 올리비에르 나카체, 에릭 톨레다노

주연 : 프랑수아 클뤼제, 오마르 사이

상영시간 : 1시간 52분 등급 : 12세이상관람가

돌봐주는 손길이 없으면 전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인 백만장자 필립이 건강한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흑인 백수 드리스와 2주간 함께하기로 한다. 자유분방한 드리스가 필립과 24시간 함께 할 수 있을까?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두 남자가 격렬한 갈등을 넘어 화해에 이르는 과정이 감동적이다.

23일



30일

서칭 포 슈가맨 (Searching for Sugar Man, 2011)

감독 : 말릭 벤젤룰

주연 : 말릭 벤젤룰, 로드리게즈

상영시간 : 1시간 26분 등급 : 전체관람가

1970년대 초, 우연히 남아공으로 흘러 들어온 '슈가맨'의 앨범은 수십 년간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며 최고의 히트를 기록한다. 하지만 '슈가맨'은 단 두 장의 앨범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신비의 가수! 전설의 '슈가맨'을 둘러싸고 갖가지 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두 명의 열성 팬이 진실을 밝히고자 그의 흔적을 찾기 시작한다.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성경에 나타난 추수절기와 그 의미



박성은 목사
용인·화성교구 담당
의료선교부, 문화선교

추수절기는 민족, 종교, 문화적 전통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세계 교회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추수절기도 그 시기나 형태에 있어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들이 지키는 각양의 추수절기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공통적으로 성경 속 옛 이스라엘 민족의 농경축제에 그 맥이 닿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여러 절기들 중 특별히 3절기를 강조하셨는데, 바로 유월절(踰越節·Passover)과 맥추절(麥秋節·Feast of Harvest) 그리고 장막절(帳幕節·Feast of Tabernacle)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추수절기로 주목해 볼 것은 맥추절과 장막절입니다.

먼저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보리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그 해의 첫 번째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초실절(初實節·Feast of Firstfruits)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맥추절은 유월절 50일 후에 지키는 절기라는 이유에서, 오순절(五旬節·Pentecost) 또는 칠칠절(七七節·the Feast of Weeks)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이라는 이름은 이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 집 밖에 장막을 치고 지냈기 때문인데, 다른 말로, 초막절(草幕節·Feast of Booths)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막절은 지난 1년 동안 경작한 곡식들을 추수하는 마지막 시기와도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수장절(收藏節·Feast of Ingathering)이라고도 합니다.

추수절기의 유래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와 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절기는 ‘기억의 지속’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절기’는 어떤 사건에 담긴 ‘의미’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행위적 시간입니다. 추수절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수’라는 사건 속에 담긴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한 것이 추수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절기는 ‘추수사건’ 또는 ‘추수에 대한 기쁨과 감사’에 국한되지 않고 더 큰 의미로 확대되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도 이제 지나갑니다. 우리 민족의 추수절기인 추석이 어느새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추수절기와 감사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온 가족이 믿음안에 하나되고 추석 가정예배의 모범을 나누고자 합니다. / 편집위원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곡식을 저장하며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로 장막절, 즉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며 장막절의 감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출애굽과 광야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커졌습니다. 맥추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형식 상 맥추절은 수확에 대한 감사가 우선이지만, 신명기 16장을 보면 수확에 대한 감사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맥추절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 속 추수절기는 단순히 추수당사자와 하나님 사이에 행해지는 절기를 넘어,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 나아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며 교제하는 절기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전통의 직접적 유래라고 알려진 미국의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전통도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감사의 전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은 단지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수확한 곡물

을 통해 새로운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낯선 땅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또 이들의 추수절기는 자신들끼리의 기쁨과 감사로 그치지 않았습니 다. 해마다 추수절기가 되면,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과 불가피하게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겪어온 원주민들을 초대해 그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 주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추수절기의 성경적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서 비롯된 기쁨과 사랑의 나눔입니다. 죄에 얽매여 살던 우리를 구원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그 다함이 없는 은혜와 그치지 않는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추수절기의 참된 의미입니다.

추수의 계절, 황금빛 들녘과 싱그러운 열매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 절기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가운데 담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남**

추석 가정예배, 한 해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자리

제공 예배부



명절 가정예배 모범

우리 교회는 해마다 설과 추석 등 전통 명절에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말씀과 찬송, 기도문을 담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석(설) 가정예배’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설과 한 해의 추수에 감사드리는 추석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정신문화를 담은 명절입니다. 하지만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명절이면 유교 전통 예절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 사이에서 머뭇거리거나 적절한 길을 찾기 어려워합니다. 우리 교회의 명절 가정예배 모범은 예배로의 부름과 사도신경 낭송을 통한 신앙고백, 가족이 함께 읽는 기도문과 나눔, 성경 봉독, 찬양을 통해 현재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주님 곁에 먼저 가 있는 분들이 하나 되는 예배를 제안합니다.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예배로의 부름’과 ‘사도신경 고백’으로 시작

올해 추석은 9월 24일로 예년에 비해 조금 이른 편입니다. 추석 가정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쁘고 감사한 자리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예배로 드립니다.

먼저 가족 중 한 분을 인도자로 정하십시오. 반드시 연장자가 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인도하실 분이면 됩니다. 가정에 따라서는 청소년인 자녀가 맡기도 합니다. 인도자가 예배 모범에 따라 ‘예배로의 부름’을 먼저 시작하고 이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합니다. 이어 찬송(올해 추석은 570장)을 부른 뒤 가족 기도문을 인도자와 온 가족이 교대로 낭송합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어 읽어도 좋습니다.

‘성경봉독’과 은혜를 진솔하게 나누는 ‘가족 나눔 순서’

다음은 성경봉독입니다.(올해는 시편 100:1~5) 인도자와 가족들이 교대로 읽어도 좋고 한 절씩 돌

아가며 읽어도 좋습니다. 봉독이 끝나면 가족 나눔 순서입니다. 예배 모범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으며, 소유 삼아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한 해를 지내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시적인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키실 것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제안합니다. 우리 가족이 지난 한 해 동안 체험한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순서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험도 진솔하게 나누는 순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찬송’과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

예배는 이어지는 찬송과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명절 가족 예배 모범은 비단 집 안에서뿐 아니라 봉분이 있는 묘소나 수목장을 지낸 자연 환경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이번 추석이 주님 안에서 감사로 가득한 예배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석 가정 예배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께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145:1~3)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송 570장 (통453)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 다같이

□ 가족 나눔의 시간

(뒷페이지에 계속)

- 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으며, 소유 삼아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한 해를 지내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②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시적인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키실 것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 찬송 559장 (통305)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 다함께

□ 주기도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가족기도문 / 온가족

인도자 : 언제나 한결 같은 은혜로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

가 족 :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도자 :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 족 : 우리 입술과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인도자 :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 족 : 세상 속에서 부족한 우리의 능력을 자랑함이 아닌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같이 :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성경봉독 / 시편 100:1~5

- 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 ②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 ③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 ④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가장 뜨거웠던 여름, 더욱 뜨거웠던 은혜 제58회 1-2차 산상기도회 참석자 지난해보다 29% 늘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뜨거웠다는 올여름, 수유리 영락기도원 역시 뜨거웠다. 말씀과 기도, 섬김의 뜨거움이 북한산 자락 기도원의 예배당과 기도처, 식당, 숙소에 넘쳤다.

올해 제58회 산상기도회는 1차 1,593명, 2차 2,794명 등 모두 4,387명이 등록, 지난해에 비해 29.1%가 늘었다고 목양

부(부장 김원상 장로)가 밝혔다. 새벽기도회와 오전기도회, 저녁기도회 등 각 차별로 7회 진행된 기도회에 참석한 연인원은 1차 4,648명, 2차 5,457명 등 모두 1만 10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산상기도회는 1차(8월 1~3일) 박성규 부산부전교회 목사, 2차(8월 8~10일) 정영택 경주제일교회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각각 7회의 기도회를 가졌고 2회의 성경통독이 진행됐다. 올해 산상기도회는 대회장인 김운성 위임목사가 전 기도회에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1차 산상기도회는 첫째 날 저녁기도회에서 박성규 목사가 시편 23:1~6절을 통해 ‘순복과 행복’을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둘째 날 새벽기도회 ‘니고데모의 변화’ 오전기도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 저녁기도회 ‘좋은신 하늘 아버지’ 셋째 날 새벽기도회 ‘새 날은 어떻게 열리는가?’ 오전기도회 ‘헌신의 원리’ 저녁 기도회 ‘하나님 나라의 모습, 교회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차 산상기도회는 정영택 경주제일교회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첫날 저녁기도회에서 누가복음 15:1~11절을 가지고 ‘은혜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문을 연 뒤 둘째 날 새벽기도회 ‘기도의 힘’ 오전기도회 ‘신앙과 시힘’ 저녁기도회 ‘회복의 힘’ 셋째 날 새벽기도회 ‘충만한 힘’ 오전기도회 ‘종말신앙’ 저녁기도회 ‘헌신의 힘’으로 막을 내렸다. 산상기도회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생방송됐다.



1차 산상기도회에서 박성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산상기도회 중 성도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

1, 2차 산상기도회 성경통독은 사무엘 상, 하를 읽는 것으로 진행됐다. 1차에서는 김충섭, 박지은 목사, 2차에서는 박성은, 남정열 목사가 인도했으며 1, 2차 모두 예진용, 어정현, 이요셉 전도사가 낭랑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을 낭송했다.

올해 산상기도회는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산을 찾은 수많은 성도들, 수 차례의 준비기도회를 통해 섬김의 기쁨을 다한 500여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은혜가 넘쳤다. 집행위원회(위원장 1차 조영리 장로·2차 김영철 장로) 산하 집행부는 총괄총무·환경시설·교통안내·생활·조리부 등 모두 5개로 구성되어 기도회의 원활한 진행을 이끌었다.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주변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교통 봉사자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한 참가자들을 안내했고, 주차장으로 사용된 한신대 앞과 기도원에 이르는 길에도 교통 봉사자들이 오가는 차량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살폈다. 화장실



기도회 중 말쑹 한 줄 한 줄을 짚어가며...



폭염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설거지 봉사자들



화장지 관리 등 위생 문제를 책임진 환경시설부 봉사자들, 연인원 1만 2천명이 넘는 식사와 생활 설비를 준비한 조리부, 생활부 봉사자들, 의료와 차량, 찬양 등 기도회를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한 총괄총무부 봉사자들, 매 식사 때마다 옥수수과 감자 등 간식을 장로들이 나눠주는 전통은 올해도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이어졌다. 특히 산상기도회 최고 인기 메뉴인 마지막 날 점심 냉면은 한 시간 넘도록 긴 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뜨거운 물에 냉면 삶는 수고와 세 번 이상 행귀 쫓기듯 면발을 유지하게 하는 비법으로 1, 2차 합해 2,288 그릇을 기록하며 산상기도회 최고 인기메뉴 자리를 지켰다. <관원화보 73면> **만남**

자료제공 1,2차 집행위원회 총괄총무
취재 박선이 선임편집위원 사진 원종석·유승현 기자



산상기도회 최고 인기 메뉴인 냉면



다음 기도회를 기다리며...

숫자로 보는 산상기도회

총 등록 인원 **4,387명**
(1차 1,593명 2차 2,794명)

총 참석 연인원 **1만 105명**
(1차 4,648명 2차 5,457명)

총 식사 인원 **1만 2,957명**
(1차 5,958명 2차 6,999명)

총 봉사자 인원 **1,120명**
(1차 553명 2차 567명)

날짜별 참가추이

1차	등록인원	식사인원	봉사자
첫째 날(8.1)	738	1,103	175
둘째 날(8.2)	567	2,276	180
셋째 날(8.3)	288	2,579	198
계(명)	1,593	5,958	553

2차	등록인원	식사인원	봉사자
첫째 날(8.8)	732	1,191	161
둘째 날(8.9)	1,204	2,964	208
셋째 날(8.10)	858	2,844	198
계(명)	2,794	6,999	567

인터넷으로 다시 보는 산상기도회



기도회 말씀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www.youngnak.net)에서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설교·찬양을 클릭한 뒤 맨 아래 <특별집회> 중 산상기도회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젊은 날의 사도신경

35세의 젊은 순교자, 김창화 집사의 생애와 유가족의 순례의 삶

1866년 선교를 위해 제너럴셔먼호를 타고 조선 땅을 밟은 첫 번째 선교사인 토마스 목사는 대동강변에서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순교했고, 한국 기독교 최초의 세례교인인 백홍준 장로는 사교를 퍼뜨렸다는 죄목으로 순교했다. 이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는 순교로 시작되었고, 지난 130년간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의 희생 위에 굳건히 세워져 왔다.

경기도 용인시에는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이 있다. 이곳에 영락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다가 순교하신 두 분 순교자의 존영과 유품이 전시되어 있다. 영락교회 본당 앞에 기념비가 있어서 많은 교우들이 잘 알고 있는 김응락 장로와 또 한 분, 바로 김창화 집사이다. 35세의 젊은 순교자, 김창화 집사의 생애와 그 유가족의 순례의 삶을 재조명하여, 영락교회의 귀한 신앙 유산을 현재의 젊은 세대들에게 이어주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유가족인 백문철 은퇴장로(마포·영등포교구)와 이광정 성도(강동·송파교구)를 만났다.

취재 박진현, 오승현 기자 사진 김태영 객원기자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전경



순교자 김창화 집사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창화 집사(1915-1950)는 평안북도 의주군 피현면 출생으로 1933년 신천군 동면 노하보통 학교와 1937년 선천 신성중학교를 장학생으로 졸업했고, 평양사범대학 연수과를 수료한 후, 의주 송장초등학교, 피현초등학교, 신의주 남고등학교 등에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3월 북한의 종교 탄압으로 월남했고, 영락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며 서울사대부중(당시 6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1950년 8월 4일 서울사대부중 뒷동산인 ‘청량대(淸凉臺)’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김창화 집사께서 순교하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습니까.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는 남과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한민족의 의지가 아닌 제3의 주변 강대국 간 이해관계로 인

해 분단된 거죠. 북쪽에 ‘조선인민공화국’이 먼저 수립되었는데, 북한에서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아 그 무렵 많은 기독교인들이 월남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고, 그때까지는 다소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과 북의 왕래는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한 내에서도 이념 갈등으로 사회적으로는 매우 불안한 상태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밥 피어스(Bob Pierce) 목사와는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요.

사실 두 분의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됩니다. 한경직牧사는 당시 옥호열 선교사와 함께 1950년을 구국전도의 해로 정하고 전국 대도시에서 대대적 부흥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50년 5월에 옥호열 선교사의 소개로 한경직 목사님과 밥 피어스 목사가 만나셨고, 성경공부를 지도할



기념관 3층에서는 한국기독교 근·현대사 순교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기념관에 있는 김창화 집사 존영



백문철 은퇴장로(김창화 집사 처조카)

교사를 소개해 달라는 밥 피어스 목사의 요청에 따라 한경직 목사께서는 당시 영락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로 섬기며 서울사대부고 수학교사로 재직하던 김창화 집사를 소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후 김 집사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밥 피어스 목사의 후원으로 성경공부반을 만들었는데, 약 4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성경공부를 시작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6·25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청년 김창화 집사의 순교 과정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집사는 평소 강직하고 반공의식이 투철하여 당시 좌익 학생들의 증오 대상이었고, 퇴학당한 학생들과 좌익 재학생들로부터 평소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밥 피어스 목사의 후원으로 학교에서 성경공부까지 하게 되니, 그에 대한 적개심은 극에 달하였던 바, 6·25전쟁 발발 후 서울이 함락되자 미처 피난을 가지 못했던 김 집사는 보안대원과 퇴학당한 좌익 학생들에게 붙잡히게 된 것이지요. 미 제국

주의의 스파이를 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30여일간 갇은 고초와 폭행 끝에 학교 운동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인민재판을 받고 총살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 제국주의의 스파이라고 자백을 하면 봐주겠다는 굴욕스런 협박에도 김 집사는 5분간의 시간을 요청해 하나님께 이들에 대한 용서의 기도를 드린 후 담대히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순교하셨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스테판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음같이 김 집사는 분명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며,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무력으로 한 생명을 마음대로 취했을지 몰라도 김 집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스스로 속건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창화 집사 순교 후 유가족의 삶은 어떠했는지요.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였습니다

김 집사 순교 후, 29세의 젊은 미망인 백옥현 권사와 어린 네 딸의 삶은 그 자체로 고난의 순례자길을 걸어야 하는 형극의 삶이 시작되었지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시편 116:15) 그의 순교가 하나님 편에서는 매우 귀중하여도 남은 유가족에게는 청천벽력이요, 수천 길 낭떠러지 위에 서있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 분의 순교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남은 유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김창화 집사 유가족, 백옥현 권사(사진 중앙)와 네 딸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시편 84:5~6) 당시는 6·25 전쟁 중이었고 정부는 이미 부산까지 임시정부를 옮겨놓은 상태라 서울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학교 구내 관사에 기거하던 유가족들은 결국 관사에서 쫓겨났고, 어린 네 딸을 데리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젊은 미망인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예수님같이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밥 피어스 목사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김 집사의 순교 소식을 들은 밥 피어스牧사는 그 전쟁 중에도 남한 곳곳을 다니며 김 집사의 유가족을 찾아 해매었고, 수소문 끝에 8개월 만인 1951년 2월 추운 겨울날 네 딸을 고아원에 맡기고 떠돌이 행상을 하던 미망인 백옥현 권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한경직 목사님과 밥 피어스 목사는 전쟁으로 인한 과부와 자녀를 위해 ‘다비다

모자원’을 설립하였고, 또 그를 통해 ‘월드비전(선명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백 권사는 부산 다비다모자원에 잘 정착하였고, 네 딸은 밥 피어스 목사의 학자금 후원으로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시편 31:19) 바로 순교자 김 집사와 그 유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의 삶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그 행군에는 반드시 동행이 있고,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백 권사는 한경직 목사로부터 부산 다비다모자원의 총무로 수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흔쾌히 수락하여 열심히 섬겼고, 그 후 모자원이 서울 성북구로 이전을 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모자원의 총무로 헌신하셨습니다.

이광정 성도(김창화 집사 셋째 사위)



김창화 집사의 딸 김웅순 권사의 간절했던 증언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우리 가족은 혼란 중에 가묘를 학교 뒷산에 두었다가, 9·28 서울 수복 이후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장례 예배를 드리고, 미아리 공동묘지(현 삼양동 일대)에 아버님의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그러나 임시로 돌무더기에 나무 팻말만 세운 상태에서 중공군 남침으로 1·4후퇴를 하게 되어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나무 팻말이 소실되어 아버님의 묘소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허망한 가운데 그래도 용인에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이 설립되어, 이곳에 아버님의 초상화와 순교자 비석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유가족의 생명을 구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산 다비다모자원에 살고 있을 당시 막내 동생(웅경)이 3살 때 우물에 빠졌는데 상처 없이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한경직 목사께서 세계적인 부흥사이신 밥 피어스 박사께 저희 가족이 순교자 가정이라고 소개하며 직접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덕택으로 전쟁 미망인과 그 자녀들을 위하여 부산에 다비다모자원을 세워 주셨고, 그곳에서 총무 일을 보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생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원하신 대로 저는 ‘선명회장학금’으로 소아과 의사가 되었고, 동생들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은 어머니의 노고도 있지만 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기회가 될 때 아버님 분묘를 영락동산에 모시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큰 딸이 드리는 글의 일부)

김 집사의 분묘가 없어진 허망한 상태에서 유가족들은 분묘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던 중에 2007년 11월, 이철신 원로목사와 당회가 결정하여 영락동산에 분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백 권사는 병중에 있었는데, 그 후 6개월 만에 소천하셔서 영락동산에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적절한 시기에 교우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교회 내에 김창화 집사 순교기념비가 생겼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서울사대부고 기독교학생반의 과거-현재의 활동 모습이 궁금합니다.

벌써 68년이 되었습니다. ‘성우회’라는 이름으로 참가 학생이 500여 명, 목사님이 70여 명이나 됩니다. 어윤배 전 숭실대총장, 김영길 한동대 명예총장, 김삼열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교육계의 큰 인물들이 기독교학생반을 통해 신앙의 뿌리를 다지며 성장했고, 미션 스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독 많은 목회자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의 네 명의 딸도 모두 서울사대부고 기독교학생반 출신입니다.

조카 되시는 백문철 장로께서 기억하시는 김창화 집사님의 모습과 현재 유가족과 후손들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고종사촌 지간이지만 늘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희 집이 서울사대부고와 가까워 자주 놀러 다녔지요. 고모님 댁이 학교 내 관사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 창문으로 김 집사님이 근무하는 모습을 들여다보던 기억이 납니다. 체구가 살짝 작으시고 고수머리에 인자한 모습으로, 저희 집안에 제가 아들

하나여서 그랬는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김 집사님의 네 딸과 자손들이 모두 훌륭하게 성장해서 현재 영락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봉사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호주, 브라질 등에서 거주하는 가족들도 있는데, 가족이 함께 ‘김창화 집사-백옥현 권사 추모사업회’를 조직해서 월드비전에 후원을 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점차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현 시대에,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김창화 집사의 생애를 재조명하며 현재 젊은 영락 교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조직이나 역사는 다 있습니다. 판단은 보는 사람 각자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반드시 있고, 또 그것을 바르게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도 세월이 지나면 결국 장년, 노년이 됩니다. 릭 워렌(Rick Warren) 목사가 쓴 『목적

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읽은 구절이 기억에 남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의식은 갖고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 받았다.

나는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다.”

이중 단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젊은이들의 세대이고, 이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우리나라와 인류가 번창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디 영락의 젊은 세대들이 순교자 김창화 집사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키우는 깊이 있는 신앙의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만남**



왼쪽부터 오승현 기자, 이광정 성도, 백문철 은퇴장로, 박진현 기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거, 자원봉사

매 주일 1부 예배 직후 8시 10분, 30~40명 정도의 자원봉사부원이 자원봉사부 사무실에서 경건회를 드리며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한다. 참으로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자원봉사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자원봉사활동 기본법)로 정의되어 대부분 도덕적 선진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모연섭 안수집사
종로·성북교구
자원봉사부 차장

자원봉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직접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공동체 운영을 위한 자발적 참여가, 그리고 기독교 절정기였던 중세기에는 부유한 이가 가난한 이를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선행이 기독교 교리에 기초하여 장려되었다. 이후에 시민사회 성립과정과 산업화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유한 이들을 포함한 사회 지도계층이 솔선수범하는 등, 많은 민주시민들(종교인 70% 중에 기독교인 50%)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서로 돕는 상부상조와 따뜻한 정(情)이 넘쳤던 사회였다. 그러나 경제부흥기에 내부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언제부턴가 과정의 건전성은 경시되었다. 물질의 우상화와 함께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우리의 이웃을 살피는 공동체 의식이 점차 실종되어 가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참여율(연 1회 이상 참여)은 18%(미, 영은 40~50%)이며, 기부참여율은 27%(OECD 평균 44%)로 지금보다는 참여율이 많이 제고되어야 경제 수준에 걸맞은 국격이 유지될 것이다. 2006년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어 전국적인 조직망이 형성되었으나 아직도 개별 활동하는 단체가 매우 많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자들은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한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영락교회 성도들의 자원봉사를 살펴보면 2가지 영역이 있다.

첫째 영역, 교회를 섬기는 일로써 자원봉사부를 비롯해 총 19개의 제직 부서에서 약 2천 명(찬양대 1천 명 포함)이 봉사 중이다. 현재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2~3개 이상의 중복 봉

사자가 반 이상이며, 고령화 추세로 인한 세대교체가 필요하고, 집사 이상의 참여율이 30% 미만으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위기 속에 있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보충하기 위한 유급인력 비율이 불가피하게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주도적인 캠페인과 성도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당 2시간 이상의 1인 1 봉사를 의무화하고 봉사자에게 효율적인 봉사 분야를 배정하기 위해 성도의 DB 구축이 준비되어야 하며, 향후 교회의 리더로서의 항존직 후보자들에게는 봉사조건을 추가하여 봉사참여율을 높인다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다.

둘째 영역,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이며 현재 250여 명이 사회봉사부와 의료봉사부에서 어려운 성도의 구제와 함께 민관단체와의 협력 하에 노숙자, 쪽방촌, 호스피스, 국내외 의료봉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12개의 영락사회복지재단 시설에서 아동, 노인, 모자복지, 그리고 영유아보육과 장애인복지사업과 함께 2개의 장학사업을 통해 다양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또 불우 이웃 돕기와 농어촌교회 돕기를 위해 월 2회, 주일예배 후 모금 활동도 하고 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 참여자가 적어서 지속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출석 교인의 2%(주당 300여 명)만 모금에 참여할 정도로 거의 방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교회 인근 이웃과의 연계성도 미흡하며 이웃 사랑을 위한 배정 예산(5% 미만)도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시 1인 1 봉사체제 구축을 비롯해, 교회 지도자의 솔선수범, 자원봉사체제의 확대 보완, 이웃 주민과의 연계성 강화, 자원봉사의 지속성 유지, 합리적인 봉사예산 확보 등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교회를 비롯하여 전 기독교계가 자원봉사 국가네트워크

망에 소속되어 국가의 인류애적 차원의 대내외적 재난과 각종 구호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민관 자원봉사 활동체제(수요/공급 정보공유, 유기적 관리체제 등)가 구축된다면 자원봉사의 수요처와 공급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자원 낭비 없이 효율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언의 말씀

- ① 교회의 지도자들이여, 모든 일에 솔선수범 합시다.
- ②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1인 1 봉사체제(주당 2시간 이상)에 참여합시다.
- ③ 젊은이들이여, 미룰 수 없는 세대교체 시기이니 교회 섬김에 앞장섭시다.
- ④ 교회여, 교회와 사회의 회복을 위해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섭시다.
- ⑤ 교회여, 자원봉사체제의 기초를 다집시다.
(성도 DB 구축, 국가네트워크 참여 등)

나라의 국격이나 도덕적 선진국의 척도는 자원봉사와 기부참여율로 가늠한다고 한다. 공동체 의식이 실종된 사회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우물 안에 갇혀버린 교회가 현재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이제는 교회가 사회를 선도하여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만이 교회도, 이 사회도 함께 사는 길이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한복음 13:15) 만남

영상의학검사 종류와 효과적 이용 및 주의사항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할 때 의사는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두드려보면서 그리고 청진기로 들으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진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의학의 급속한 발달로 많은 진단방법이 개발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혈액이나 소변 등을 분석하는 진단의학검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상을 이용하는 영상의학검사입니다.



이관섭 집사
동대문·중랑교구
의료선교부

영상의학검사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급속한 발전을 하여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몸의 해부학적 구조와 병변을 정확하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단법이 없을 때에는 환자의 증상을 통해 그리고 의사의 진찰만으로 진단을 내리고 약물로 치료하거나 수술을 해 왔지만, 영상진단방법이 개발된 이후로는 영상검사를 하여 영상학과 의사가 판독을 하고 결론을 내린 후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학과 의사는 영상검사를 판독하게 되는데 정상과 비정상 여부, 그리고 비정상 소견일 경우, 염증인지 종양인지를 판단하고 종양일 경우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판독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영상의학은 판독이 주 업무였다면 최근에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조직을 채취하고 더 나아가 간암 등을 직접 고주파 시술로 치료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료에 관여하는 분야를 중재적 영상의학이라고 합니다.

영상의학과는 과거에 방사선과라고 불리웠는데 그 이유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음파, 자기공명검사(MRI) 등은 방사선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는 영상학과로 개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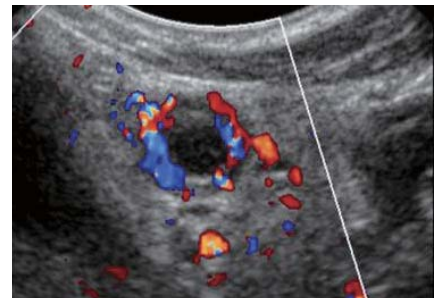
이번 「만남」에서 영락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영상의학검사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검사를 먼저 시행합니다. 폐렴이나 결핵을 의심할 때는 가슴사진 곧 흉부 X선 촬영을 하고 배가 아플 때는 복부사진을 찍습니다. 골절이 의심될 때는 다친 부위를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의사는 이 사진을 보고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단순 촬영은 전통적인 방사선과의 대표적인 검사였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검사의 방사선은 매우 낮기 때문에 방사선 장해를 크게 염려할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1. 위장관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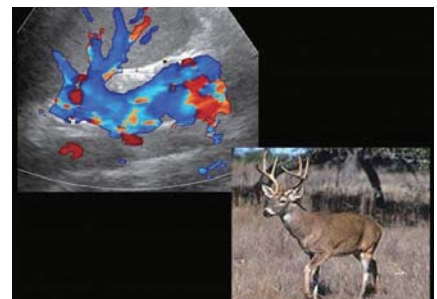
병원에서 물 같은 하얀 약을 먹고 위 검사를 하거나 항문으로 약물을 주입하여 대장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요즈음에는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검사입니다. 그러나 소장의 병변을 진단하는 소장바륨조영 검사는 아직까지도 매우 중요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방사선량이 많은 검사에 해당됩니다.

2. 초음파검사

초음파검사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높은 주파수의 음파를 인체 표면에서 인체 내부로 보낸 후 내부에서 반사되는 음파를 영상화시켜서 검사하는 진단 방법으로 방사선이 아니기 때문에 방사선 장해가 전혀 없는 검사 방법입니다. 임신 여부나 태아의 발달 정도를 관찰할 때도 초음파검사를 할 정도로 안전한 검사법에 해당합니다. 초음파검사는 영상검사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검사에 해당되며 특히 어린아이들의 진단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를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야간에 방문하면 영상학과 의사가 없을 경우 CT를 바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응급이 아닌 경우 조금 기다리더라도 초음파검사로 진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어른보다 방사선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CT보다는 초음파로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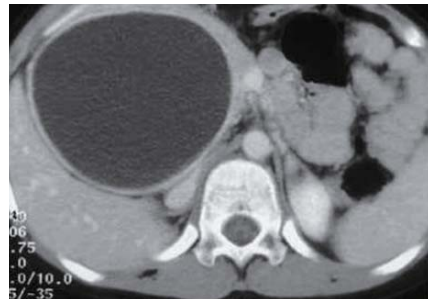
급성충수돌기염(맹장염)의 초음파 소견으로 염증으로 인하여 혈류가 증가하여 충수돌기 주위로 칼라음영이 증가되어 있다.



칼라 초음파 사진에서 마치 사슴 모양의 재미있는 소견이 보이고 있다.

3.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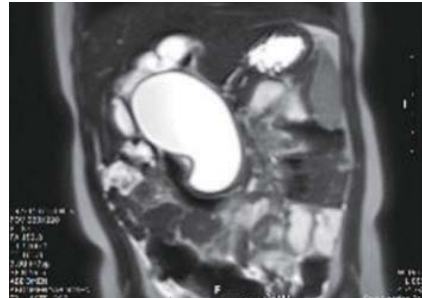
CT는 인체를 절편으로 잘라 보는 횡단면상을 획득하고 이것을 합성하여 3D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CT가 개발된 이후 전신의 해부학적인 검사가 획기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CT 검사로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등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CT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검사 시간도 급격하게 짧아져서 30분 이상 걸리던 검사가 최근에는 5분 이하로 짧아졌습니다. 그 결과 CT를 이용한 검사는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T를 이용한 영상진단으로 말미암아 의학에서 엄청난 진단 능력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주의점도 있습니다. CT검사는 방사선량이 많은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꼭 필요한 검사인지 다른 검사로 대체할 수 없는 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강검진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건강검진을 할 때 3~4년에 한 번 정도 CT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매년 CT로 복부의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서 복부 검사를 한다면, 초음파로 2~3회 검사를 하고 한 번은 CT로 검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컴퓨터 단층촬영(CT)에서 췌장 부분이 늘어난 담도를 나타낸다.

4.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자기공명영상검사는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기계가 고주파를 발생시켜 인체에 보내면, 인체 내의 수소원자핵의 반응으로 발생하는 신호를 컴퓨터로 계산하여, 인체의 모든 부분을 영상화하는 검사 방법이며 인체에 사실상 해가 없는 비침습적 검사로 신경, 근육 등 연부조직에 대한 대조도가 높아 진단적 가치가 우수한 검사입니다. 단점은 고가의 검사이며 조영제를 사용하여 검사를 할 경우, 신장이 안 좋은 환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소한 공간에 들어가서 검사를 해야 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검사할 때 들리며,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는(30분~1시간) 것도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공명영상(MRI)에서 담도가 확장되어 있는 선천성 총담관낭(choledochal cyst) 소견이다.

이외에도 여러 검사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영상의학검사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병원을 방문하실 때 각 검사의 장단점을 아시고 효과적으로 이용하셔서 영적 건강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신앙아카데미 성경암송 발표회 말씀으로 무장된 다음세대



“2018 성경암송 발표회”가 신앙아카데미(부장 박종민 장로) 주관으로 지난 7월 8일(주일) 찬양예배 시 본당에서 있었다. 영락교회의 다음세대인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1명씩, 총 7명이 거침없고 막힘없이 암송하는 모습은, 함께 했던 온 성도들에게 놀라움과 충만한 은혜, 영락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박종민 장로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암송하면서 발표회를 마쳤다.

성경암송대회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발표자 순) 유아부: 채서인, 유치부: 표하진, 유년부: 최태양, 초등부: 최세희, 사랑부: 백세원, 소년부: 오채현, CEBC: 구승찬

제공 신앙아카데미

의료선교부 전교인 교육 알아 두면 도움 되는 응급처치들



7월 22일(주일 2시) 봉사관 지하 예배실에서 의료선교부(부장 김정훈 장로)는 전교인 대상으로 강사 이성우 교수(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의학과)의 ‘알아두면 도움 되는 응급처치들’이라는 주제로 응급상황과 대응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강하고 지속적인 통풍이 수반될 경우, 심 정지 환자가 발생될 경우, 음식물 등 이물질로 기도 폐쇄될 경우, 독충 및 뱀에 물렸을 경우, 독버섯과 야생의 섭취 할 수 없는 나물류의 섭취에 의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 그리고 여름철 일사병과 열사병 등에 의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 등과 같은 다양한 응급 상황과 대응법, 응급처치법 등을 설명하였다.

취재 최윤미 부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교역자 동정



2013년 1월부터 본 교회 부목사로 사역한 유재경 목사가 2018년 7월 31일자로 사임하고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대덕교회(www.ddpc.or.kr)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본 교회에 재임하는 동안 유목사는 동대문·중앙교구, 강동·송파교구, 성동·광진교구, 영성수련원, 북한선교센터(자유인예배), 예배위원회, 음악부, 교회음악아카데미, 3남3녀선교회, 안수집사회, 호산나찬양대 등을 담당하였다.



영락 ‘교회음악아카데미’ 개강 찬양대원 봉사 희망자, 수강생 모집

2018 영락 ‘교회음악아카데미’ 2학기 과정이 8월 27일(월요일) 저녁 7시 교육관 201호에서 개강한다. 하나님께로 향한 아름답고 영성 있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 1996년 설립된 영락 ‘교회음악아카데미’는 지난 22년간 음악부에 소속된 7개 찬양대의 신규 찬양대원 양성과 재교육을 목표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금번 2학기 ‘교회음악아카데미’는 총 16주간/주1회/2시간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회음악의 기초이론과 찬양에 필요한 시창 및 성악실기 지도과정인 ‘일반과정’, ‘심화과정’, 전문적인 성악실기 지도과정인 ‘전문과정’, 그리고 기초지휘 ‘지휘과정’ 등 총 4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찬양대원의 음악적 실력 향상과 신앙적 소명감의 함양을 교육목적으로 진행된다.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길 소망하는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권면한다. 취재 박진현 기자

- 접수기간: 2018년 8월 27일(월)까지
- 수강문의: 음악부 02)2280-0151 / 총무 최경돈 집사 010-5266-9091

2018 ‘복적복적’ 독서감상문 공모전 “다음 세대 vs 다른 세대”

참가대상 청소년(중·고등학생), 일반(대학·청년, 장년)

참가방법 지정도서 가운데 택1



지정도서		제출형식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진기(광상학 / 두란노) • 십대, 성경으로 세상을 보라 (김경덕 / 사랑플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레너드 스윗 / 예수전도단)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 리바이벌 (이창호 / 예수전도단) 	

접수방법 전자우편(clibmi@nate.com) 또는 직접제출(도서관 3층 데스크)
파일명: ‘성명_도서명’, 소속 학교(반, 이름, 연락처) 기재
중·고등학생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정도서 무료 배부(반드시 독서감상문 제출해야함)

참가문의 02.2280.0293(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새가족 환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일(6월 24일~8월 5일)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가동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6월 24일	김명옥	05	025
7월 1일	정대한	12	053
7월 8일	이완문	06	053
	최호진	07	039
	권태영	18	000
	이계화	01	000
	양순례	01	000
	이명인	13	000
	차영옥	12	005
	장해진	10	000
	Javad Gheibi	03	002
	박성민	04	057
	Behnaz Salehi	03	002
	유경종	13	004
	신호철	18	000
	진소연	05	025
7월 15일	선희연	08	043
	백승철	10	000
	정명범	16	000
	이헌순	10	000
	오옥례	09	027
	정재진	06	000
	김래영	16	000
	김형민	05	016
	이윤정	06	000
	정연주	08	055
	이서연	16	043
	이은찬	08	014
	박미경	06	002
	이순애	12	044
7월 22일	강운성	11	000
	이영구	04	029
	오정영	12	044
	이수옥	03	034
	문성현	01	000
	정문철	06	000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7월 22일	홍빛나	10	000
	정지윤	16	000
	김보겸	01	030
	홍유민	10	016
	정하은	07	000
	기철	03	049
7월 29일	서옥임	12	007
	백흥건	06	000
	신명숙	03	000
	백사희	01	000
	문용희	01	000
	김영애	06	000
	정일심	11	000
	김진우	08	000
	이강훈	15	035
	조해인	05	046
8월 1일	조재인	05	046
	이재인	02	034
	이정록	12	011
8월 5일	유효진	18	030
	이영숙	17	000
	장원우	05	000
	김영운	12	011
	서경애	05	000
	서정훈	03	000
	윤혜원	03	000
	윤병철	09	029
	신지호	14	043
	김민서	12	029
	신서희	14	043
	임연수	14	020
	장윤호	07	047
	임다은	14	020
	최하은	08	000
	최예은	08	000
	안하은	02	000

7월 사료 기증 현황

기증자	기증일	기증사료
김정자 은퇴권사 (10교구)	7/4	- 1991년 7월 만남의 길 1건 - 1992년 7월~10월 만남의 길 6건 - 1999년 4월~2011년 5월 만남 49건
임상열 집사& 권춘하 권사 (6교구)	7/8	- 1991년 5월 10일 한경직 목사 관련 조선일보 기사 1건
김선옥 권사 (2교구)	7/8	- 2002년 제42회 1차 전체산상기도회 일반음성테이프 9건 - 2002년 제42회 3차 전체산상기도회 일반음성테이프 9건 - 2004년 선교대회 하용조 목사 설교 일반음성테이프 4건 - 2005년 제45회 2차 전체산상기도회 일반음성테이프 7건 - 2006년 제46회 1차 전체산상기도회 일반음성테이프 8건

사료를 기다립니다

1.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수상 사료(외부인사 서신 포함)
- 외부기관 수여 감사패
2. 교회를 상징하는 주요 기념품 - 교회 깃발 및 로고, 교회의 머릿돌
3. 교회 발행 도서/간행물 - 제직부서의 정기간행물, 교회학교 및 교회 교육자료
음악부 찬양대 간행물, 설교문 및 설교테이프

문의 : 역사자료실 ☎02)2280-0357

목회력

9月

2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유아세례식

7일(금)

금요권찰공부 후반기 개강, 연합권찰공부

9일(주일)

제직회

21일(금)

심방준비회

23일(주일)

사회봉사주일

30일(주일)

간증주일

>> 영락화랑 : 아름다운 묵상



백병원 쪽 교회 복문으로 들어서면 왼쪽 한경직목사기념관 모퉁이에 하얗고 평화로운 돌조각이 하나 서있다. 눈 여겨보지 않으면 지나쳐버릴 만큼 익숙해져 있는 조각상인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명패도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각가 김경옥 은퇴권사님이 1982년 기증한 작품이다. 어머니와 두아이의 평화로운 오수가 떠오르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 비상하는 천사의 모습 같기도 하다. 동글동글한 두 아이의 얼굴과 입술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같이 평안하다. 작가는 좁은 차고의 작업실에서 작업하던 시기,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한 현실보다도 열악한 상황이지만 열정적인 작품에의 열망으로 충만했던 때, 베르디의 노예들의 합창을 들으며 몰두하여 만든 작품이라고 한다. 스스로 흠과 씨름하는 노예신세 같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척박한 작업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작품에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교회 복문을 들어설 때면 작가의 믿음과 열정의 산물을 눈으로 한번씩 쓰다듬어 주어야겠다. 거기 잘 서있다고...

최진희 편집위원

>>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일상에서 제자답게!” ‘교회생활’을 넘어서 자신의 삶과 일에서도 ‘예수 제자답게’ 살아가려는 교우들의 이야기를 이달부터 특별 기획 지면에 담습니다. 이번 9월호에는 미술 영역에서 그와 같이 노력하고 있는 교우 몇 분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가 아니라 오직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며”(요7:18) ‘자신이 만나는 하나님’을 ‘자신이 만드는 작품’ 속에 표현하면서 ‘예배로 드리는 나의 미술’을 하려고 애쓰는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로 드리는 나의 미술”이라는 주제의 이번 ‘기독교미술인 좌담회’를 통해 독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제자로 따르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각자의 모든 일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현해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고 근원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순교와 쉽게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거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롬 12:2) 오히려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 곧 성경말씀에 부합하도록 이 세상 문화와 이 세대를 선제적으로 이끌어가고, 그러기 위해 이 땅에서 예언자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한다”(사60:1)는 것은 순교의 길만큼이나 험난한 길임도 분명할 것입니다.

또한 앞에 56-61페이지에는 자신의 생명을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주님께 드린 순교자 김창화 집사와 그 유족들의 삶이 “젊은 날의 사도신경”이라는 주제로 다뤄져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편집진들이 그 유족들과 나눈 좌담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고 봅니다. 그 앞쪽에 위치한 ‘영락지금’이라는 섹션에서도 청년 편집진들이 “영락 대학생 눈에 비친 전도”라는 주제를 이번 9월호와 다음 10월호에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조용하지만 하나의 움직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영락교회의 새로운 세대’, ‘아곱의 세대’에게 과연 ‘사도신경’, ‘신앙고백’, ‘전도’, ‘순교자적 삶의 태도’란 무엇을 뜻할까요? 결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것을 아우르는 주제는 역시 ‘거룩한 공회와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에서 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뚜렷하게 나오는 ‘거룩한 공회’를 ‘예배’와 관련지어 이달 특집 주제로 다뤄보았습니다. 「만남」 독자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거룩한 공회의 일부로 드리는 하늘의 큰 복락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편집장 김병욱 안수집사

▶ 독자의견을 기다립니다. 홍보출판부_youngnak-hb@daum.net 02)2280-0197~8

만남

2018년 9월호
통권 536호

편집위원회

▶ 만남편집소위원회 | 편집기획팀 | 김홍범 안집, 박선이 집사(선임), 박종하 집사, 우대권 청년, 임대현 집사, 조성일 집사, 최진희 집사

▶ 만남기자팀 | 강은진 집사, 목진경 청년, 박진형 집사, 박현옥 권사(선임), 오승현 청년, 윤진경 집사, 최윤미 집사(부선임)

▶ 만남교열팀 | 김관용 집사, 김연경 권사(선임), 박인이 집사, 이광미 권사 | 디지털편집(준비)소위원회 | 만남클라우드팀 | 김광만 집사,

류정현 집사, 목진경 청년, 박종하 집사(선임), 오승현 청년, 우대권 청년, 디지털기자팀 | 김경옥 권사, 김수연 집사, 설재훈 안집(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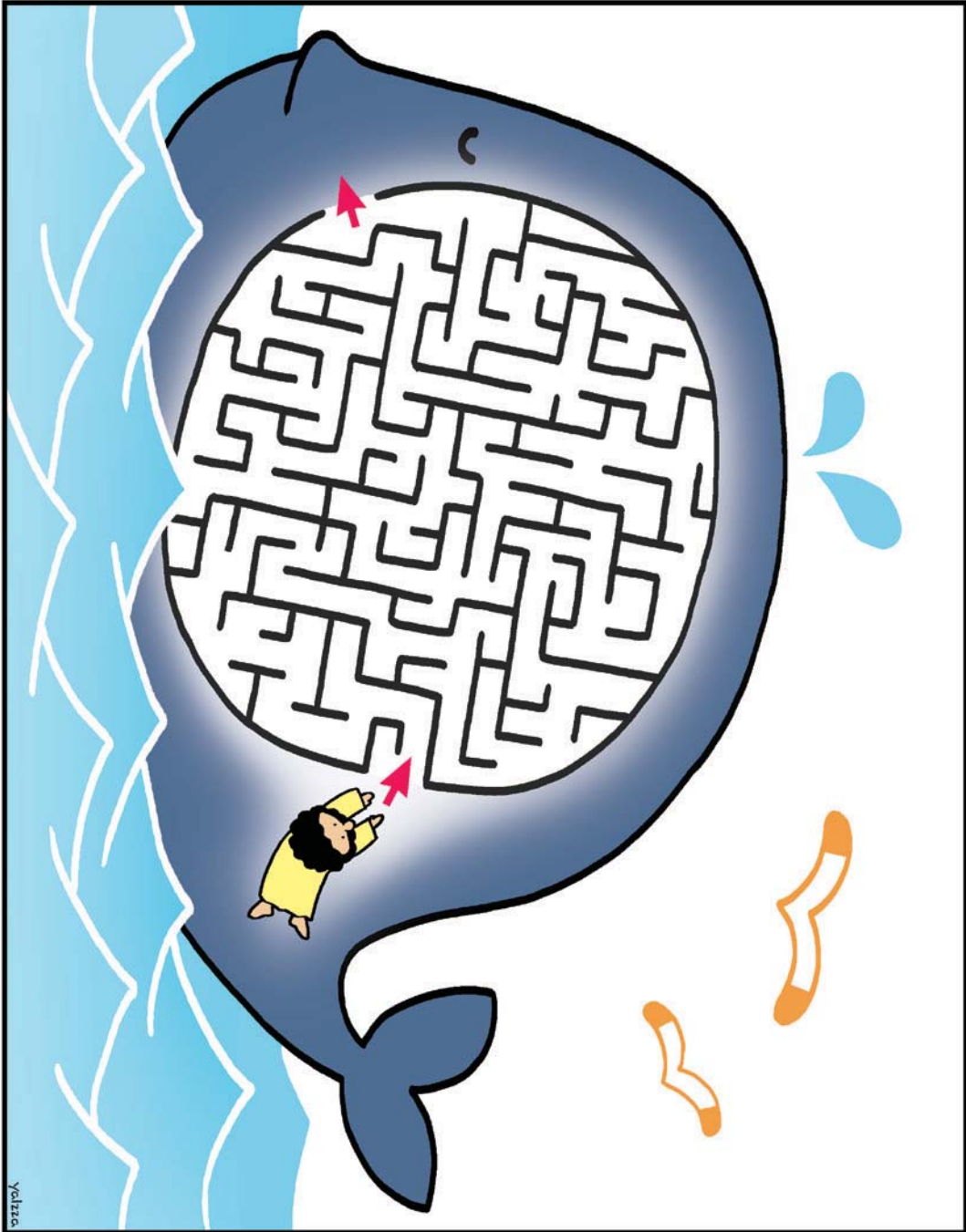
송경희 권사, 이동훈 집사, 인미 집사(부선임), 사진기자팀 | 김한기 집사, 박홍기 집사(선임), 원종석 집사, 유승현 성도, 이미혜 권사(부선임)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미로 찾기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는 풍랑을 만나 고래 뱃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나오는 길을 함께 찾아보아요~



화보 2018 산상기도회 이모저모

‘야곱의 시대’를 여는 산상기도회

제1차 8월 1일~8월3일, 제2차 8월 8일~8월 10일



영락화랑



김경옥 은퇴권사(서초교구), 대리석, 108×106×53cm

평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